NOV 1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8-979 1982년 11월 12일(금) & 1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October 12 & 1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27일 한인회장 인준총회

회비납부자만 참석자격 이사회, 논란끝에 결정

오는 11월27일은 3만 교민을 대표하는 토론토한인회장을 뽑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 투표장에는 82년도 회비 20달러를 납부해야 참석할 자격이 있다.

지난 10월27일 제18대 한인회장단 후보를 마감했으나 장순채(회장후보), 이기훈(부회장 후보), 변의섭(부회장 후보)팀이 단독출마, 한인회 이사회는 그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선거날인 27일로 결정, 장순채씨팀의 신임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장순채씨팀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적어도 100명 이상의 회비납부자가 모여 이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제18대 한인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10일밤 이대환 한인회부이사장 사무실에 모인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함병섭)는 인준방법과 임시총회 참석자격을 놓고 열띤 토론을 전개했으나 종전대로 인준총회를 갖기로 하고 그 자격은 18대 한인회장 선거방침대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인준총회에서는 회비 납부자든 비납부자든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안과 이미 회장선거자격을 회비납부자에 한하기로 했으니 인준총회의 참석자격도 이 방침대로 하자는 오현구씨 동의안 두가지를 표결에 부쳤으나 9:8로 오현구씨안이 통과됐다.

오현구이사는 동의안 설명에서 "이사회에서 한인회장 선거에 회비납부자만 참석시키기로 한것은 획기적 안"이라고 말했다.

강찬명이사(변호사)도 보충설명에서 "회원의 책임은 안하고(회비납부) 권리만 주장할 수(회장인준투표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삼씨등은 한인회장을 위한 인준총회는 종전대로 비납부자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하면서 "한인회가 지금도 모이기 힘든데 총회를 회비납부자로 제한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반론을 폈다. 박광철씨등이 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후 의견대립이 팽팽해지자 이 두 안을 놓고 표결, 오현구씨안이 통과됐다.

단독후보로 제18대 한인회장에 출마한 장순채씨도 이날 참석했으나 한마디의 발언도 없이 묵묵히 결과만 기다렸다.

토론토한인회장 선거는 대체로 열기가 없어 78년 강신봉회장, 80년 강우석회장, 81년 박인순회장팀등이 모두 단독출마, 인준총회를 거쳐 당선이 확정됐다.

계속되는 단독출마에 자극을 받은 일부 이사들은 한인회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회비징수방법과 선거방법등을 더욱 강화, 회장의 지지기반을 넓혀주고 교민들의 참여도도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번 장순채회장단의 단독출마 인준은 종전보다는 약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의 회장단은 100명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가족들과 자기 업체 종업원들까지 동원, 머리수만 채운후 거수로 결정했었다.

이번에는 회비납부자에게만 참석자격이 주어지므로 100명의 정족수를 채우기도 힘들고 총회가 성립된다해도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

장씨팀은 현재 지지기반을 넓혀가면서 회비납부와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준에서 만약 부결되었을 때의 대책등은 논의하지 않은채 장씨팀의 인준 가·부 만을 안건으로 세야 했다.

◆11일밤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한인회장 인준 문제로 열띤 논란을 벌였다. 좌로부터 장추신, 장순채(한인회장 단독출마), 박주삼, 최복기 이사.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푸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금리 계속 하락

1년만기 모기지 13.25%

11일 주요은행의 모기지율이 2년내 최하수준인 13.25%까지 내려왔다.

이와같은 하락은 뱅크·오브·캐나다가 중앙은행율을 11.2%에서 10.84%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율이 11% 이하로 내려가기는 2년이상내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은행 금리가 하락되자 은행와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인 프라임·레이트도 크게 내렸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프라임·레이트를 13%로 재조정했다.

5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금리하락은 신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그이유는 캐나다경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고문에 우려 표명

국제사면위 한국인권문제 조사

(LA지사발)약 3백명의 한국의 양심범들의 문제를 조사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82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아직도 복역중에 있는 양심범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81년중 한국에서의 인권문제사항을 다룬 이 보고서는 특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장없이 체포, 구금, 고문 당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해 11월10일 전대통령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수차의 특사로 일부 양심범들이 석방된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중공탈출 미그19기 한국레이다 포착못해

(서울발-외신)중공 전투기조종사의 한국경유 대만망명사건은 현재 기체처리 문제가 남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 미그 19기가 황해상공에 나타나 착륙하기까지 한국공군은 이를 포착하지 못해 방공체제의 결함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한다.

이것은 6년전, 일본 하꼬다데공항에 망명해온 소련공군의 미그 25기의 경우와 같으며, 재래식 방공체제가 저공침입에 약함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공군은 차제에 체제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반지 대리점
약혼·신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1979년 10월 동·베르린에서 거행된 동독30주년 기념식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18년간 소련 최고 통치자

브레즈네프 사망

화해 내걸며 군비확장한 실리파

75세, 후계자는 15일 지명될듯

(모스크바 12일=외신종합)지난 18년간 소련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해온 레오니드·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10일 아침 8시반 급작히 사망했다고 이날 타스통신이 발표했다. 향년 75세.

이 발표는 당 지도층중 어느 누구가 숨졌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지 하루만에 나왔다.

지난 64년 후루시초프를 축출하고 소련의 최고 실력자로 자리를 굳힌 브레즈네프의 사망발표 이후 소련 TV및 라디오방송은 정규 프로를 중단하고 고인의 추모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이날 새벽 3시반 침상에서 브레즈네프 급서소식을 들었다. 특별한 안보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으나 미국무성 관리들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련 국영 TV방송은 공식 사망발표에서 "위대한 레닌주의의 진정한 계승자요 평화와 공산주의 이념의 열렬한 옹호자인 레오니드·일리히·브레즈네프의 이름은 소련 국민과 모든 진보적인 인류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식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장으로 엄수된뒤 「붉은 광장」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29년간 통치해 온 스탈린이 지난 53년 급서한 이후 소련 최고통치자가 공직기간중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15일 후계자를 정식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는 사전 내정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인준만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브레즈네프가 마지막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 7일 「붉은 광장」에서 거행된 볼쉐비키 혁명 제65주년 기념식전에서였다.

그는 최근 수년간 기관지염및 심장질환을 앓아왔다고 전해졌었으나 확실한 사망원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브레즈네프는 서방세계와의 긴장완화정책을 고수하면서도 군비를 계속 확장해온 실리적인 온건파로 휘하 정치국원들을 잘 통제해온 정치수완가 다.

브레즈네프는 스탈린과 후루시초프등 그의 전임자에 비해 반대파를 혹독히 숙청하는 대신 중립을 지키는 편이었다.

1, 2차 미소군비축소조약과 헬싱키협정, 그리고 앙골라, 이디오피아, 모잠비크등 반중공 세력을 심어놓은 것등은 그의 주요업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중동에서 소련의 기반을 잃게된 것,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그의 실책으로 평가된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9-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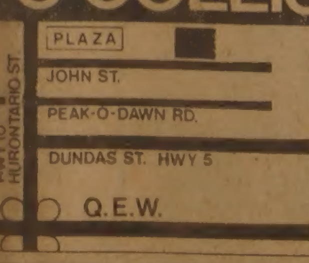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있어 경제적이며 활자가 아름다워 사무용(특히 교회주보용)으로 최적입니다.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누구나 한글을 칠 수 있읍니다.
○어린이들 한글공부에 취미가 생기고 한글을 익히며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시기에도 적합하며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쌍초점타자기 발명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발명특허(1950년)
◇속도 한글타자기의 발명으로 대통령상 수상(1958년)
◇고성능 한글타자기 발명으로 외솔문화상 수상(1974년)
캐나다 총 대리점
연락처 : 245-0995 김영수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비상「자원관리법안」국회제출

"사실상의 국가 총동원령", 비난일어

(서울발-외신)한국정부는 지난 5일 사실상의 국가총동원법이라 할 수 있는 「자원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세~50세의 모든 남성과 60세 이하의 과학자·기술자 등록및 자동차업계·항공기 조립기술 부문등 전략물자 생산시설을 비롯, 신문·방송등 매스컴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등록을 실시, "장차 필요시"에 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매스컴 통제강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이 안의 국회제출 벽두부터 언론계등의 반발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법안 골자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이라는 표현을 취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1년에 15일간 이내의 훈련실시의 길을 터놓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 제출이유로서 다만 "현행 자원운용에 관한 규제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법제화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안에 대해 "자유화 정책을 발전시켜, 긴장완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강하다.

이 법안에 관해 국가안보회의의 정윤영 동원제2부장은 6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희망한다"고 말해, 제안자인 정부측이 법안수정에 응할 방침임을 비쳤다.

수정부분은, 야당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동법 제1조의 발동요건으로 「장래 필요시」라는 문구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때」로 수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자원관리법안」은 7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자원운용에 관한 규칙」을 정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사실상의 국가총동원령이라 하겠다.

제일야당인 민한당의 육요상 의원은 5일의 국회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에 중대영향을 끼친다. 발동요건을 「장래 필요시」로 막연히 규정한 것은 정부에의 백지위임으로 위헌사항이며, 악용의 여지를 남기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박종기 원내총무도 6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기한 것은 제5공화국 발족으로 「유신체제」의 잔재를 일소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법안의 제출은 특별조치법을 없앤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말했다.

한편 여당인 민정당의 이종찬 원내총무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르완다 난민 집단자살

식량아껴 어린이 살리기위해

(나이로비 케냐 =외신종합)적어도 35명의 르완다 난민들이 굶주리는 어린이들에 보다 많은 식량을 주기위해 스스로 집단자살했다.

10일 유엔의 난민문제위원회의 한 관리는 인접국인 우간다와 르완다가 국경을 봉쇄키로 협정을 체결하는 바람에 8천명의 르완다난민들이 우간다의 난민수용소에 갇혀있으며 이들은 적어도 2주일동안 식량을 배급받지 못해 아사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약1주일전 난민중 주로 노인과 병약자들이 어린이를 위한 식량을 아끼기 위해 가축용 구충제를 먹고 숨져갔음이 뒤늦게 전해졌다고 전했다.

집단자살이 벌어진 난민수용소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 남쪽 203Km 지점, 르완다 수도 키갈레 동북쪽 153Km 지점으로 우간다 남서쪽의 아카게라강 안에 위치해 있다.

총회겸송년파티 해밀턴 한인회

(해밀턴)해밀턴한인회(회장 이영구)는 12월11일(토) 하오8시, 시내 Sytill교회(204 Park St. N.)에서 총회겸 송년파티를 연다. 음식, 주류등 무료.

이번 총회에서는 업무및 재정보고, 차기회장 선거도 실시한다.

한맘노인회 월례회 노인복지 강연

토론토의 한맘노인회(회장 김성근)는 오는 14일(일) 하오3시 먼다스의 한맘회관(439 Dundas St. East, Tor.)에서 강연회를 연다.

연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강사는 한인인권옹호위원회 윤호영 위원장이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겨울스포츠의 꽃 스키를 즐깁시다 ④

박경택(온타리오 스키협회회장)

스키는 잘닦고 온도 잘 유지해야

폴을 가속도·방향전환·감속등 역향

(3)스키목판의 재질.

이상적인 스키의 조건은 잘 미끄러지고 감각이 스므스(Smooth)하고 이상한 느낌이 없으며 부러지지 않는 것이다.

1930년대에 스키를 합판으로 생산, 1936년 바트멘 기르헨 올림픽대회에서 모든 선수가 합판스키를 사용했다.

대개 골재는 나무를 사용하는데 북미산 힛코리(Hickory)등 배습성이 강하고 탄성이 강한 참나무들이다.

힛코리나 기타 참나무 종류만 합판하면 중량의 문제와 스키탄성, 그리고 배런스가 문제되기 때문에 다른 나무 2, 3종을 혼합제조한다.

다음에 발달한 것이 프라스틱제품이다. 이 유행도 지나가고 화이버그라스(Fiberglass)와 메탈제품, 허니콤(Honeycomb)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메탈제품도 바닥은 화이버그라스로 접착되어 있다.

최근에 생산되는 스키 소울(Sole)은 Polyethylene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웬만한 설질에서는 왁스 없이도 스라이딩이 잘된다. 스키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강력접착제로서 요소수지 접착제와 탄력성이 좋은 수지제의 접착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관리를 잘해야 스키의 성능을 오래 살릴수 있고 깨끗하게 오래 탈수있다. 스킹후에는 물기는 잘 닦아서 건조하게 하고 너무 더운데나 습한 장소에 두지 말아야 한다.

바인딩도 점검하고 Pole의 링도 살펴서 안전하게 보관한다.

계절외에 보관할때도 여름에 습기 차는것은 나쁘다. 선선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4)스키바인딩(Ski Binding)

바인딩은 스키목판과 스키붓츠를 연결시켜 묶어주는 쇠붙이다.

이것은 성능과 형태별로 수많은 종류가 있다. 메이커마다 성능과 형태의 차가 다소 있다. 그리고 경기 종목별로 차이가 크다. 세계적메이커는 살몽(Salmon), 룩(Look), 타로리아(Tyloria), 마커(Marker)등이 있다.

바인딩을 처음 구입하여 사용할때 스킹하는 느낌이나 동작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동작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에서 다시 조절하여 자기에게 맞도록 한다.

너무 잘 풀려도 나쁘고 강하게 조여서 너무 안풀려도 위험이 따른다.

초보자는 약간 느슨하게 하는 편이 안전하다.

(5)스키 폴(Pole)

스키폴은 스피드를 가속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폴의 기능은 아주 다양하다. 폴은 배런스, 콘트럴, 턴에 필요하며, 또 감속시키는 역할도 한다.

폴의 재질은 과거에는 함툭을 사용하였고 근래에는 쥬라루민, 스틸등이 쓰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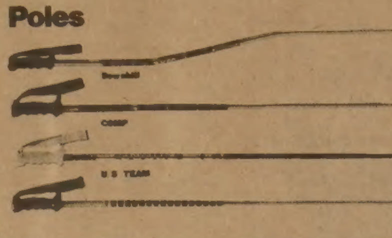
최신것으로는 Moon Stock의 카본 화이버·샤프트(Fiber Shaft)가 생산되고 있고 끝은 샤프한 것이 아니라 바스켓형으로 변환되어 성능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

Pole은 가벼울수록 좋다. 초보자의 경우 길이는 Pole을 거꾸로 세워서 스노링이 가슴밑에 닿는것이면 적당하다.

최근의 바스켓형 Pole의 길이는 약간짧다.

크로스 컨튜리용 Pole도 경합금으로 제조되고 끝에 샤프가 칼날같이 서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도 주의하여야 하고 주위에서 혹은 뒤에서 쫓아오는 스키어도 조심하여야 한다.

(계 속)



金聖鍾작

第5의 사나이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107>

29분의 1 ⑫

「그렇죠. 아파트가 편하죠.」

그는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아니요.』

『그럼 무슨 일로…?』

『사실은 저…』

그는 잔에 술을 따랐다.

『저는 살인과에 있읍니다.』

그는 상대를 보지 않고 말했다.

여자가 두 손을 깍지 끼는 것이 보였다.

『그게 뭣 하는 데인가요?』

『살인사건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삼켰다.

『여기에 온 것은 살인사건 수사차 온 겁니다.』

『네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크게 몸을 움직였다. 놀란것 치고는 움직임이 매우 커보였다.

『우리 집안에서 살인이라도 일어났다는 건가요?』

毛世를 아느냐고 묻자 그녀의 눈동자가…

『미안합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우리 집은 가정부까지 모두 네식구예요. 아이는 아직 어리구요. 모두 너무 착해서 파리새끼 한마리 못 죽여요. 아빠는 회사일로 바쁘시구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손에 묻은 술을 휴지로 닦았다.

『미안합니다. 말씀은 잘 이해할수 있읍니다.』

『아무리 경찰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할수있어요? 만일 아빠가 아시면 저 이상으로 화를 내실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한선생님한테는 잘 말씀해주십시오. R상사 상무이사라면 각계에 아시는 분이 많으실테니까 저같은 놈 모가지쯤이야 전화 한통화로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자는 이 돼지 같은 형사가 진심으로 말하는건지 아니면 빈정거리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없었다.

남편의 직장과 직위까지 알고 있는걸 보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찾아온 것이 틀림없다.

『혹시 모세라는 이름 들어보셨읍니까?』

『네? 뭐라구요?』

그녀는 앞으로 상체를 굽혔다. 잘 듣지 못한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물었읍니다. 모세 말입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모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말인가요?』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복잡미묘한 표정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남자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요.』

그는 탁자 위에다 손가락으로 「毛世」라고 써보였다.

朴 男 그림

번영회, 잉·호프에 선거자금

상가개발·파킹장확대등 기대

코리아·타운 번영회(회장 장순채)는 지난 8일 실시된 시 총선의 토론토 제5지역 시의원 후보중의 하나로 최고득표했던 중국계 잉·호프 현시의원의 선거자금으로 $1,250를 기증하고 일부 번영회 회원들이 선거요원으로서 잉·호프씨를 밀어주었음이 밝혀졌다.

12일 장회장은 한인상가 북쪽에 파킹장을 마련하고 블루어상가를 토론토시 5개 시범구역중에 포함시키는등 한인상가 번영을 위해 애를 썼고, 같은 동양인으로서 코리언·코뮤니티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보답하는 뜻에서 호프의원을 밀었다고 말했다.

번영회는 호프의원이 선거공약에서 밝힌 시당국과 스파다이나와 크리스티간의 블루어상가 집중개발과 파킹장 확대, 한인 코뮤니티와의 유대강화, 한인상가 주변의 경찰력 강화등을 앞으로 3년간 재임할 잉·호프의원에 기대한다고 장회장이 말했다.

황해도 향우회 회장에 김준순씨

황해도향우회(회장 오윤섭)는 10월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총무 김준순씨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토론토한인회 도서실 설치에 주역으로 공이 큰 김씨는 모국의 이북5도청내 황해도청(도지사 정봉중)과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캐나다내 도민들의 유대와 친목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김씨는 노인들의 친목단체인 동락회및 오순절장로교회 어버이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바로 잡습니다◆

11월11일자 신문은 편집실수로 잘못된 점이 있기에 사과드립니다.

1면 머리기사 "한국군파병 요청" 세째단과 네째단이 바뀌었읍니다. 다음이 맞는 순서입니다.

「한편 쿠웨이트통신은 8일 한국을 비롯한 적어도 9개국이 레바논정부로부터 레바논의 평화유지군에 파병을 요청 받았거나 앞으로 요청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통신은 런던의 신문보도를 인용, 이들 9개국은 한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영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요청은 지난 주말 사림외상에 의해 이들 9개국들의 대사 또는공관장들에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3면 실험뉴스 기사중 회원투고 박찬도 이사의 글 제목이 바뀌었읍니다.

"시의회 상정"은 다른 기사 부제였고, 맞는 제목은 "실험의 우수한 전통이 이루어지기를"입니다.

「풍선」에 몸담고 世界일주여행

▲지중해와 북미대륙횡단을 최초로 성공했던 풍선여행가 맥시·앤더슨이 7일밤 3번째 풍선세계여행에 도전, 1백19피트키의 풍선「쥘르·베른」호를 타고 사우스다코다에서 하늘로 올랐다. 25만입방피트의 헬리움을 채운「쥘르·베른」호는 고도 2만5천피트, 시속 80~90마일을 유지하며 캐나다·유럽상공등 1만7천마일을 날아 8~10일후 사우스다코다로 돌아올 예정이다. 〈래피드시티, 사우스다코다-AP〉

레바논 파병안 국민관심 총집중

(서울11일=연합)한국이 레바논정부로 부터 평화유지군에 파병을 요청받았다고 발표한 10일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범석 외무장관은 국회외무위에 출석, 정부는 비공개리에 이 문제를 신중히 토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일 레바논정부로 부터의 파병요청을 받은 외무부가 접수사실을 이같이 늦게 밝힌 것은 정부반응에 대한 국내외의 심각한 반사작용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규모와 시기 혹은 근무연한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정부는 레바논정부로부터 같은 파병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영국, 네델란드, 오스트리아등 3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요청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파병지지측은 레바논의 평화유지에 한국군의 참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지위를 향상시키게 될것이며 파병요청의 배후조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외교적 이득을 얻을 계기가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측은 복잡하게 얽힌 중동분쟁에 한국이 개입될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한국이 파병을 하게 되면 현 레바논지도층과 사이가 나쁜 리비아등 일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정부의 비동맹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샬
국화화분
도매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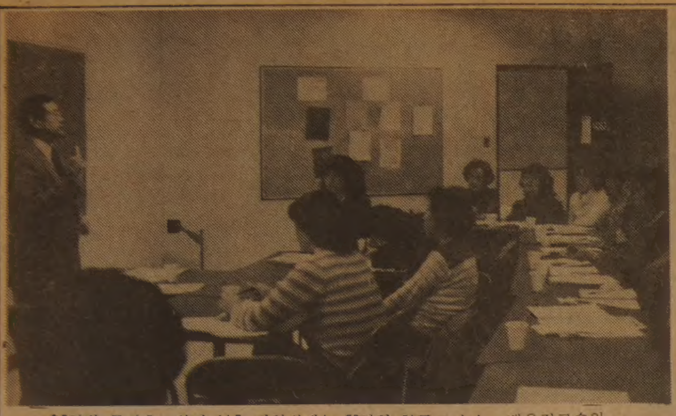
923—9948
Mrs. 정

차상범 회계사무소
개업 인사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Lakeshore Blvd.에 회계사무소를 열어 세무와 회계업무및 경영상담으로 교포 여러분들을 성심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삼가 바랍니다.

학력
B.A. in Economics — Warren Wilson College Swannanoa, N. Carolina
M.Sc. in Economics —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Louisiana
Diploma in Accounting — Wilfrid Laurier University waterloo, Ontario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 Shore Blvd. W. Toronto, Ontario M8W 1M8
☎: (Bus.)(416) 255-8301, 259-5822 (Res.) (519) 653-3329

보광한약방
확장 이전
개업 안내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봉사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 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B)588-1984
(R)439-6717
627 Bloor St. W. #200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송계 김남집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8일밤 로바츠도서관 14층 강의실에는 20명의 한글교사가 백응진교수의 〈한국말 교수법〉 강의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강자 전원이 여성들. 강의실의 유일한 남성인 백교수의 한국말 강의 소리가 복도에까지 들려왔다.

한국어교수법강의 성황

한글교사 자질향상 기대

20여명의 교민여성들이 매주 월요일 밤이면 토론토대학의 로바츠(Robarts)도서관 건물로 모여든다. 이들이 하오7시 집결하는 곳은 14층 353호 강의실. 언어학자인 백응진교수가 가르치는 〈한국말교수법〉 강의가 열리는 곳이다.

교민수가 늘어갈수록 한국어학교와 교사수가 늘어났지만 이에 비해 교사들의 자질향상및 체계적 교수법에 대한 대책이 미약했음은 지난 8월 위니펙에서 열린 전국 한글교육자대회에서도 지적됐었다.

백교수가 주도하는 〈한국말교수법〉강의는 이같은 필요성에 힘입어 한국정부및 캐나다교육당국의 재정적 뒷받침으로 토론토대학내 성인교육(Continuing Studies)의 한 과목으로 지난9월 신학기에 처음으로 채택된 12주 코스이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유일한 한국말교수법강의이자, 토론토대학에서 한국말로 실시되는 유일한 강좌이다.

5년전부터 한국말·한국언어학등을 강의해온 백교수는 지난8일밤 기자와 만나 "처음 이 강의가 생길때 과연 15명이상(15명이하이면 대학당국은 강좌를 취소한다)의 수강신청이 들어올 것인가 우려했었지만, 현재 등록학생은 30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토론토의 각 한글학교및 교회 한국어교사수를 백여명으로 어림잡는다면 거의 3분의1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셈이다.

직장 혹은 가사일, 그리고 주말의 한글학교봉사등 바쁜 일정을 쪼개어 매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꼬박꼬박 강의에 나오는 성의와 수업시간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은 교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백교수는 전했다.

그는 자녀들이 제1국어 아닌 제2외국어로서 한글을 배우고 있으므로 모국의 교과서와는 다른 이곳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교과서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교수는 또 자녀들이 쓰기와 읽기는 유창하나 대화에 있어서는 문장과 어휘가 제한된 유아적 한국말밖에 구사못하는 문제는 글 이전에 말을 먼저 습득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효과적인 교수법의 기초는 한국말의 문법및 음운론 체계 파악에서 비롯되지만 너무 학문적·체계적이 되면 수강자들이 다소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다

백교수는 지금까지 UT 한국어학생들에 강의해온 내용을 간추려 내년 1월경 Modern Korean Syntex 즉 〈현대 한국어 구문론〉이란 책을 영어로 출판할 예정이다.

대조언어학(Contrastive Language)적인, 즉 한국어의 특정구문이 영어의 어떤 표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밝혀내 한국어교사는 물론 한국말을 배우려는 캐네디언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백교수는 2세들에 한국문화보전에 봉사하는 교사들의 성의를 높이 사며, 언어학자로서 교사들에 다소라도 도움을 줌으로써 한인코뮤니티에 기여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57년에 서울사대 영어과를 졸업, 교편을 잡다가 67년 대만 한국어학교 교장으로서 해외교포교육에 종사한뒤 브리티쉬·콜럼비아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B.C. 빅토리아에 있는 가족으로는 실내장식가인 부인과 1남2녀.

"有利한 證據物"콧수염 깎았지만…

"햇빛이 그립다"…이철수씨 告白시리즈⑤

이번에 재심을 받으면서 나는 그동안 소중히 길러왔던 콧수염을 말끔히 깎아 버렸다.

어떤사람은 『콧수염이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인데 왜 깎아버렸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나는 진실이 밝혀질것을 믿고 있었다.

나를 진범이라고 증언했던 검찰측증인 데이브·렌논이나 스키선수였던 앤디·길까지도 『범인은 콧수염이 없는 24~25세정도의 동양남자로 몸무게가 1백45파운드정도』라고 진술했었다.

사건당시 나는 현장근처도 아닌 바로 내하숙집에서 걸프렌드의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20세인 나는 몸무게가 1백25파운드고 콧수염을 멋지게 기르고있었다.

이점은 나를 아들처럼 옥바라지를 해준 도리스·과 아줌마나 랑꼬·야마다 변호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의 사법제도에는 맹점이 많이 있다.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미국이 나같은 유색인종에게는 백인과 같은 인권이 보장되지않고 있다.

영어를 잘모르는 나에게 샌프란시스코경찰은 통역도 붙여 주지않았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나를 처음부터 용의자로 몰고서 기계적으로 재판증거물을 만들어갔다.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나는 종신징역을 선고받고 트레이시의 듀엘교도소에 수감됐다.

처음부터 재판을 공정히 했다는 점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물음에 미국검찰은 대답을 하지않고있다.

첫번재판에서 공정했다면 내가 감옥에 갈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듀엘교도소에도 안갔을 것이고 사건도 일어나지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검찰과 재판정은 스탁턴에서 옥중살인혐의로 나를 심리할때 샌프란시스코갱살인까지 합쳐서 「두번 살인한자」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미국이 인권을 존중한다면 무엇보다도 도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시민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이철수사건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의 변호사 세라씨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다.

또한 배심원평결에 들어가는 12명배심원들에게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판단해서 오류가 없으면 이철수는 무죄로 평결해야 한다』는 로버트·도시관사의 교시가 바로 미국의 사법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수무죄평결의 주역들이 지난 9월3일 방청객들과 함께 재판정에서 배심원평결을 기다리고있다.

"억울한 獄살이9년"忍耐로 달래고 「두번 殺人者」낙인 씻을그날이오길…

해야 한다는 중요성은 바로 나와같은 케이스에서 찾아볼수 있다.

무혐의로 풀려 나야했을 내가 9년이나 무고한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지난 무죄평결로 미국법정이 인지하고있는 것이다.

일이 더욱 복잡해진것은 내가 옥중에서 살기위한 수단으로 정당방위살인을

이제 나는 담담하게 제2사건 항소심을 기다리고있다.

9년을 옥중에서 지내오면서 내가 배운 것중의 하나는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

대학생동창회 첫 모임

"선후배와 대화의 시간"

지난 9월 발기된 재온타리오 한인대학생동창회(회장 윤주석)를 보다 한인사회에 기여가 큰 모임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 형식의 대화의 시간이 오는 20일(토) 하오7시부터 교육회관 221호실에서 개최된다.

범교민 단체대표 10여명과 대학 재학생 클럽인 KUSA회원 약간명을 불러 대학생동창회에의 기대를 듣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설정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연락처는 윤주석(245-2125), 김신옥(248-1653)

대학생 동창회 임원진 확정

재 온타리오 한인대학생동창회 회장단이 최근 임명한 동창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 장 윤주석
부회장 김신옥
총 무 김회체
서 기 최귀암
회 계 고자경
사업부 김태현
김의애
친교부 이재용
김희관
홍보부 김종환
정재호
문화부 김광태
고정화
고 문 김의명
재정고문 이학수
이사선임위원 박성수
최기환
장 영

치 과 개 업

하기 장소에 새로이 치과를 개업하고 교민 여러분에게 성심껏 봉사하겠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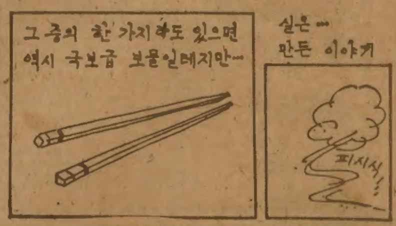
치과의사 윤 중 태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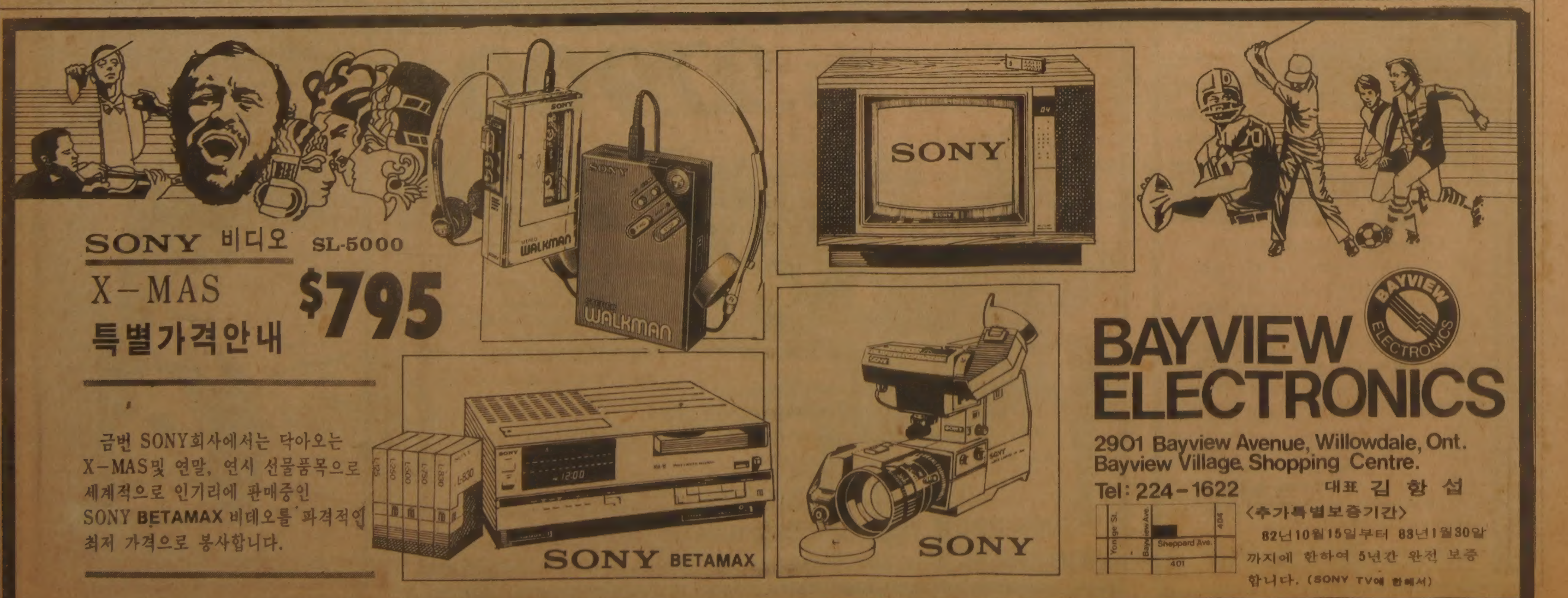
☎ : 925-2408
주소 : 360 Bloor St. W. #307
(1 Block W. of Spadina)
(지하에 파킹장이 있읍니다)
시간 : 월~금9:00~6:00 토 9:00~3:00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훼밀리·닥터(의사 왕운린)
600 SHERBOURNE ST. #402
(B) 968-1543 (R) 363-9196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국일보
우리의 健全한 新聞

"外債도입 縮小조정하라"

——어제 國會豫決委 질의

"구체적 景氣회복 對策없나 비현실적 金利에 連動制를"

◇손가락질하며 激論 實名制是非로 장시간空轉해온 財務委의 운영문제를놓고 9일하오 民正黨간사인 鄭順德의원㊧과 民韓黨의 金在暎부총무가 서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토론을벌이고있다.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고있는 국회豫決委는 9일하오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朴有載 趙尙來 文炳良 吳漢九(이상民正) 閔炳楚 朴寬用 洪思德(이상 民韓) 曺德鉉의원(국민)등 8명이 나섰는데 특히 이중 文炳良 朴寬用 洪思德의원등은 금융實名制문제를 집중거론,『새해 예산안은 實名制를전제로 편성된 것인데 만일 實名制 실시가 연기될경우 83년및84년이후의 재정정책의 기조에 어떤 변경이있을것이며 그에 따른 소득세 法人稅 각종 租稅정책의 기조는 어떻게달라질 것인가』고 물었다.

이들의원들은 이와관련『정부측은 새해예산안이 原案대로 심의통과, 시행되었을때 歲入에 차질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徵稅額과 稅率을맞추기위해 과세표준을 징세당국이 임의로 신축조정하는것을 뜻하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밖에 朴有載·趙尙來·吳漢九·閔炳楚·曺德鉉의원등은『현행金利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이많은데 이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정부의 잇단 경제조치에도 불구하고 不況은 계속되고있는데 구체적이고 확실한경기회복의 정책기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들의원은 또國·公債발행을 再考하라고 재차촉구하고 外債도입계획도 축소 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특히曺의원은 올해금리를 점차 連動制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이밖에도 ▲國債상환금의 財源을 확보키위한 減債基金제도의 마련 ▲下都給單價정거래규제법의 제정 ▲소비자물가가 秋穀수매가인상률 7·3%를 상회할경우 그 보상대책有無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를위한 촉진법의재정용의등을 물었다.

의원들은 또 이밖에도 ▲外米도입분중 아직도 未船積分인 23만6천톤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明星건설이 무허가로 龍仁군과 楊平군에21동의 콘도미니엄을 건립분양하고있는데 이를 放置하는 이유 ▲多元化된 海外진출 창구의 시정책 ▲지방공업단지의 육성과 그활성화방안 ▲농업産業협동기금이 설치됐는데도 정부출연금이 없는 이유등을 물었다.

旅券에 天然色사진 내년 1월1일부터

외무부는 여권의변조및 위조를 방지하기위해 내년1월1일부터 여권사진을 천연색사진으로 통일시키고 지금까지 허용해오던 黑白사진의부착은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財務委、계속空轉

民正 稅法강행·民韓 實名수정 맞서

實名制법안의 심의여부로 與野간에 의견이엇갈려 9일째 空轉되어온 국회재무위는 民韓黨이 不參하더라도 당초의 의사일정에따라 稅法案심의를 강행한다는 民正黨의방침과 實名制법안의 修正案을 재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民韓黨의 방침이 팽팽히맞서 9일 저녁까지 열리지못한채 昏迷상태를 계속하고있다.

이에앞서 民正黨과 民韓黨은 각기 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결과 民正黨은『더이상 재무위를 空轉시킬수 없다』며 民韓黨의원들이 不參하더라도 強行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반해 民韓黨은 총재단과 총무단에게 對策을 일임했다.

이러한 양당의 결정에따라 民正黨과 民韓黨은 여러차례 간사접촉을 갖고 재무위정상화문제를 논의했으나 兩黨의 주장이 팽팽히맞서 합의를보지 못했다.

이날 民正黨은『금융小委문제가 9일간의 협의에도불구, 타결을 보지못한 상황에서 財務委를 더이상 空轉시키는것은 곤란하다』며 금융小委 구성문제는 뒤로미루고 당초 의사일정대로 9일부터 세법 심의에착수하자』고 民韓黨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民韓黨은『금융小委는 7개 금융관계법안만심사하고 실명제 법안은 小委 전체회의에서 분리, 심의위에서 심사토록해야한다』고 주장한후『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않는이상 財務委정상화에 응할수없다』고맞섰다.

이에 앞서民正黨과 民韓黨은 지난5일부터 여러차례 부총무회담을갖고 금융小委구성 문제를포함한財務委 정상화문제를 논의했으나 民正黨측이『일단 금융小委를구성, 먼저실명제 법안의 심의를 미루자』고 주장했고 民韓黨은『금융小委는 7개 금융관계법안만 심사하고 실명제법안은 小委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蘇軍트럭과 油槽車 충돌
터널서 1千명死亡
아프간서、蘇軍 7백명등

【이슬라마바드(巴)=聯】아프간에 주둔하고있는 약7백명의 소련군과 최소한 4백명이상의 아프간민간인이 지난주 살랑파스터널에서 발생한 유조차와 소련군호송차와의 충돌사고로 유조차에 불이붙어 연기가 터널에 차는바람에 질식사망했다고 이곳의 서방외교소식통이 9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카불의 보도들을 인용, 힌두쿠스山으로 통하는 주요통로인 이터널안에 차량들이 무더기로쌓여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소련군이 사건초 모슬렘반군의 습격을받은줄로 오인 양쪽출입구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카불의 서방외교관들은 이사고로 7백명의 소련군이 질식사했고 2백명이 부상했으며 4백~2천명의 아프간민간인이 사망했을것으로 추산했다.

우드루가테 將軍 蘇軍이 殺害했다

【이슬라마바드(巴)=聯】지난달초 자살한것으로 보도된 카불지역군사령관이며 아프가니스탄군부의 제3인자인 알울·우드루가테장군은 이슬람반군과 내통한것으로 의심한 소련당국에의해 살해됐다고 파키스탄으로 망명한前아프간관리가 9일 전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資源法案 撤回안해"

羅 非常企劃委長 「必要時」國會수정 따르겠다

羅熙弼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은『資源관리법안은 지난1년동안 충분한 검토를거쳐 立案, 국회에 제출한만큼 법안을 철회해 修正案을 새로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국회심의과정에서 건설적인의견이 제기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資源관리법안의 立案책임자인 羅위원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法案 목적에 있어『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라고 표현된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적절히修正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일부에서 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徵發法등으로 이법의 효과를 代替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나 總力戰체제를 준비하는데는 이들 법만으로는 미흡하기때문에 이법안을 제출케됐다』면서『그러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중점관리대상에 한정돼 현재이상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

羅위원장은 이어『이법의 對象業體수는 7만여개이나 실제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업체는5%에 미달하는 3천2백여개에 불과하고 관리대상人的자원도 20세에서 50세까지 1천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제계획상으로는 3만~4만명에 지나지않으며 이법에의해 1년에 한번정도 있을실제훈련에 참가하는 업체는 百단위, 人的자원은 1천명선에 지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법안중 대통령令에 위임조항이 21개나되는등 委任사항이 너무 많아 국민의기본권침해와 확대해석의 가능성이많다는 야당 주장에 언급,『위임대목은 기본계획작성절차나 기술人力의 당범위등 절차사항이 대부분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로없다』면서『국회심의과정에서 시행령委任조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民正"통과" 野선"沮止"

資源法案 이번國會 최대爭點으로

정부가 제출한 資源관리법안의 처리를 두고 民正黨이 9일 이번국회會期에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운반면 民韓黨은 철회요구와아울러 통과沮止를 공식결정함으로써 이법안은 앞으로 實名制법안의 처리와 아울러 이번회기에서 최대의 爭點으로 부각돼 크게 論難을 불러 일으킬것 같다.

民正黨은 이날 상오 職者회의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를 대통령令으로 계속 맡겨놓을수는 없으므로 자원동원등에 관한규정을 代替하는 上位법률의입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아 이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金瑢泰대변인은『정부가자원관리법안을 철회한다면 이는국민의 기본권제약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令으로 계속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국회가 입법부본래의 입법기능을 외면하는처사』라고 야당측의 철회주장을 일축했다.

발트하임接見오찬 全斗煥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9일낮 청와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37차 국제청년회의소(JCI)세계대회 基調연설을위해 訪韓중인 쿠르트·발트하임前유엔사무총장(現美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교수)부부를 접견한뒤 오찬을베풀고 환담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美南캐롤라이나州의 리처드·라일리지사를 접견했다. 이자리에는 韓美경제협의회의 桂鳳赫이사장과 워커駐韓美대사가 배석했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새마을婦女會 서울市 聯合會 6백만원
世原開發(株) 都會明대표 外 1백60만원
天道教永登浦教區 50만원
監理教서울神學校 37만원
한국텅스텐工業 30만원
天道教水原教區 12만원

▲새마을婦女會 서울시연합회 회원一同=6백만9백45원 ▲世原開發(株) 대표이사 都會明씨외임직원一同=1백60만3천6백80원 ▲天道教永登浦教區=50만4천원 ▲감리교 서울신학교 교직원및학생一同=37만9천5백원 ▲한국텅스텐공업(株) 임직원一同=30만원 ▲天道教水原教區=12만원 ▲天道教牙山教區=9만5천원

【인천지사 접수】

▲天道教興産教區=7만4천원 ▲天道教柳德教區=5만5백원 ▲天道教西部教區=5만6천5백원 ▲天道教清州教區=5만원 ▲天道教丹陽教區=4천5백원 ▲天道教海南教區=4만5천원 ▲天道教彌阿教區=2만원 ▲鍾路區社稷洞18통주민一同=4만원 ▲在말레이지아한인회(회장 노형원)(3차분)=美貨50달러 ▲江南區良才洞17통주민一同=9만원

◇고침=10월8일자 경북 青松郡縣東面道坪洞 정운경씨는 정동경씨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都會明씨

<9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카메룬 大統領 돌연 下野발표

【야운데(카메룬)=聯】지난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이후 줄곧 카메룬을 통치해온 아마두·아히조대통령(58)이 4일밤 돌연 사임을 발표했다.

日 29일首相선출

【東京=聯】퇴임하는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의 후임자가 오는29일 국회에서 선출돼 즉시 조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정계소식통들이 4일 말했다.

先進國 무역장벽 하루빨리 헐어야 李外務

李範錫외무장관은 9일『개발도상국의 성장속도가 늦어 나게되자 이를 억제하는등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 태동기에있는 開途國의 유치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선진국의처사를 이해할수없다』고 밝히고『자유무역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開途國을 설득하던 先進國들이 이제逆으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수없다』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을 비난했다.

李장관은 이날 新羅호텔에서 열린 제37차 국제청년회의소(JCI)세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이러한 조치는 오랜식민지배끝에 독립하여 어려운여건에서 조그만 진보를 보인 국가에대한 刑罰이라할수있다』고 덧붙였다.

社会漫評

이렇게 벅찬것만 자꾸…

地平線

개화기 이전까지 우리생활 풍속 가운데서 음료라하면 숭늉과 막걸리를 연상했다. 특히 막걸리는 반양식처럼 되어 있어서 농번기나 농한기를 가릴것 없이 누구나 즐겨 마셔 그 폐단도 헤아릴수 없었다. 조선시대 말기의 실학자 정다산은 막걸리를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녹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 하며 녹차 마시기를 권장했다.

▼그러다가 해방이후 미국문물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코피와 홍차가 새로운 기호품으로 등장, 이들 외래차를 지난날의 숭늉이나 막걸리처럼 애용하게 되었다. 이같은 새 기호의 유행과 더불어 거리에는 다방이 즐비하고 그 외래차의 대금도 연간3천5백만달러에 이르는 과국이 되었다.

▼동양3국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즐겨 녹차를 마시는데 유독 우리만이 그것을 멀리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서는 그들식으로 차를 마시는 절차를 의식화하여 티·셀레머니라 하면 마치 일본을 연상할만큼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일본은 잽싸게 외래의 풍습을 스스로의 것으로 소화해서 차도의 본고장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는 신라때부터 차를 마셔왔고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사신들이 그 차구들이 아름다운데 놀라움을 표할정도로 음차의 풍이 고도로 발달하여 일반화되다시피 했었다. 이런 전통은 조선왕조때도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다만 개화기 이후의 혼란기와 일제치하 또는 광복후의 사회적 격변으로 녹차를 즐기는 풍습이 쇠퇴하였을 뿐이었는데 근자에 이르러 그 소생의 기미가 사방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민간각계에서 여러형태로 차모임을 갖고 또 각급학교에서도 과외활동으로 녹차를 법도 있게 즐기려는 서클활동이 활발해 졌다.

▼그러던차에 이번엔 정부서도 국장급 이상의 집무실에서는 코피나 홍차대신 우리 산에서 자라는 녹차를 대접하도록 결정을 하고 여직원 5백명에 대해 녹차를 우리는 법과 예법등을 교육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래 기호품에 밀려났던 신라이래의 전통이 제멋과 향기를 되찾게 된 셈이다.

▼우리는 녹차를 마신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기호가 단지 기호로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 고유문화의 전통과 그 가치의 재정립으로 연결지어질수 있게끔 마음을 모아야 할것 같다. 좋은 차를 가꾸고 아름다운 찻그릇을 만들어 내며 차를 마시기에 걸맞는 점잖한 자리를 꾸미는 일과 차의 멋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리 손쉬운 일만은 아닐것이다.

한국일보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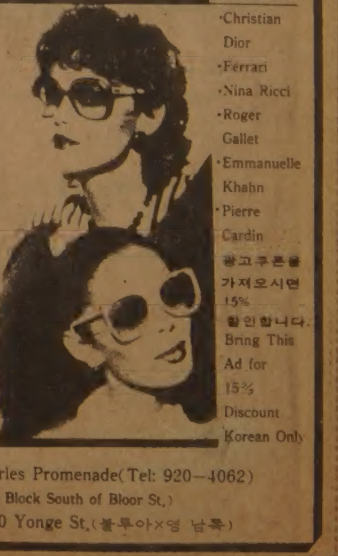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 7 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2437 Finch Ave. W.

FLORIDA 2BD.RM. BUNGALOW $27,900
BUILDER'S SPECIAL OFFER $26,500 NOV. 15까지
NEAR CLEARWATER !!

-20% DOWN
-¼ ACRE LOT INCLUDED
-CENTRAL AIR & HEATING
-MASONRY CONSTRUCTION
-10 MIN. TO BEACH & GOLF
-1 HR. TO DISNEY WORLD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HOME INSPECTI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G(이영용)
BUK S. CHANG, P.ENG(장북성)
KYU-YUL, CHO(조규열)
DONG-CHUN, KIM(김동천)
YOUNG-WOON, AHN(안영운)
YONG-CHUL, KWON(권용철)
SANG ROCK INC./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Suite 503 Mississauga ☎ : 629-1242 9 : 00AM-9 : 00PM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蘇機 美航母공격권 接近

北太平洋 7艦隊 기동훈련중

백파이어 8대 模擬미사일 攻擊

【워싱턴UPI AP=聯】 지난 9월30일과 10월1일 양일간 알류산열도근처의 北太平洋에서 美제7함대가 기동훈련을 벌이는 동안 소련의 백파이어폭격기들이 처음으로 美항공모함의 공격거리안으로 접근, 美航母들에 대해 모의순항(크루즈)미사일공격작전을 전개했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소련의 극동기지들로부터 발진한 8대의 장거리백파이어폭격기들이 한꺼번에 4대씩 美航母엔터프라이즈號와 미드웨이號에 대해 모의순항미사일공격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핵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가변익의 백파이어폭격기들이 美항모들로부터 1백92㎞떨어진 지점에서 그와같은 모의작전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두척의 美항모와 호위함들이 이 백파이어폭격기들을 탐지, 또는 이들의 접근을 저지하려했는지 또는 美해군요격기들이 모의반격작전을 전개, 이 백파이어폭격기들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토머스·저코브스키美해군대변인은 「백파이어폭격기들이 美항모에 근접한 지점에서 활동한것은 처음있는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백파이어폭격기들의 새로운 작전을 공개한것은 西太平洋에 대한 소련의 위협증대를 경고하고 이지역의 美우방들에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의 11일간에 걸친 아시아국가순방을 앞두고 때를 같이하고 있다.

◇제트機잔해살피는 이란記者와 回教戰士 이란 기자및 회교전사들이 7일 후제스탄주 모하람지역에 격추된 이라크공군 수코프 22제트기의 잔해를 살펴보고있다. 이사진은 이란관영 IRNA통신이 제공한것이다. 【메즈룸8日AP聯=聯】

레바논左右派 또交戰

2일만에 休戰깨져 15명死亡

【베이루트AP=聯】 레바논의 우익기독교민병대와 좌익드루즈파회교민병대사이에 8일 이스라엘점령 중부산악지대에서 전투가 재연되어 적어도 15명이 사망했다고 보안관계소식통들이 전했다.

레바논보안군과 우익기독교도가 운영하는 레바논의소리방송은 수도 베이루트동남쪽 약30㎞떨어진 회교도마을인 크파르·나브라크읍에서 기독교장례행렬에 드루즈파회교武裝人들이 발포, 교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안관계소식통들은 이 발포로 조문객 10명이 죽자 우익기독교 민병대가 응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레바논정부소식통들은 아민·제마옐대통령이 이날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점령 슈프산악지대에서 악화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군 지휘관들을 바받다에 있는 대통령궁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中共外相에 吳學謙 유력

이달하순 열릴 全人代서

【北京AP=聯】 中共외상 黃華(69)가 11월하순 열리게될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기간중 사임하고 그후임에 당서기 胡耀邦의 측근인 부외상 吳學謙이 임명될것으로 예상된다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9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吳가 지난5월 수석부외상으로 갑자기 부상한 이래 아시아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교문제를 다루어왔다고 지적하고 黃華는 외상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노쇠한것으로 여겨지고있다고 말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黃이 지난7월 발생한 모잠비크주재 中共대사관내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자아비판을 강요받았으며 자아비판을 통해 中共외무성내 이념투쟁이 해이해진데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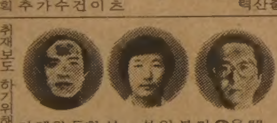
소식통들은 또 黃이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 제한에 관한 中·美공동성명을 성사시키는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黃의 후임으로 이름이 오른 吳는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당대외연락부와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다.

유태인定着村건설 中止압력

레이건, 19일 베긴과 會談때

【텔아비브AP=聯】 레이건美대통령은 오는19일 워싱턴에서 베긴 이스라엘수상과 회담할때 아랍점령지내에서의 유태인정착촌건설을 동결토록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이스라엘 신문들이 8일 보도했다.

하레츠·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신문들은 레이건대통령의 유태인정착촌건설 동결요청에도 불구, 베긴수상과 부장관은 요르단江西岸및 가자지구 등에서 정착촌을 추가건설, 확대하기위한 계획을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亞洲경기 취재向發

閔炳宅 朴載均 權周薰기자

한국일보 閔炳宅(체육부)·朴載均(사진부)·權周薰기자와 일간스포츠 사진부기자등은 9일 한국신문공동취재단으로 뉴델리 아시안·게임을 취재보도 하기위해 9일 오후 KAL편으로 떠났다.

多國籍派兵요청…美의立場

레바논自體보다 목표는 中東평화

平和軍 時機·규모등에 관심

상황따라 美海兵 증파 가능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바논정부가 한국등 4개국에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한것으로 전해진 8일정오 브리핑에서 미국무성 존·휴즈 대변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언급없이 현재 레바논에 주둔중인 1천2백명의 미해병의 일부증파시기는 1차적으로 오는 연말이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美해병의 증파나 다국적 평화유지군연합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은채 「연말」이란 미국이 희망하는 시기를 말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2주전인 지난10월18, 19양일간 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의 訪美후 파다하게 전해진 얘기는 美해병의 증파였고 선거가 끝난뒤 이에 관한 결정은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최종목표는 레바논 그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중동평화유지이고 이를 위해서는 레바논의 평화안정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레바논의 재건에는 1백억내지 1백50억달러가 소요되는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레바논의 입장에서 다급한것은 1만2천명의 정규군을 비롯, 2만수준의 레바논군을 적어도 4만 수준으로 늘리는 일이다.

미국방성은 어미 조사팀을 파견, 레바논의 재건을 위한 훈련장비등 군원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4백명의 미해병을 의 긴급원조외에 내년중 1천2백명으로 늘린것도 그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세계은행(IBRD)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미국의 지원은 레바논의 재건이며 그때까지는 평화유지군이 그야말로 레바논의 평화유지에 관련된 모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것이 레바논의 요청이자 미국의 희망이다.

외국군의 전쟁이 끝난뒤 레바논 재건에는 현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美해병의 증파로 주둔해병의 역할확대를 은 레바논정부가 평화유지군 보다는 생각도 미국으로서는 원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시사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국제평화유지군을 증파하는데 필요한 것은 레바논 자체의 평화와 안정이며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의 몫이다.

國際

社說

이기고 배울 亞洲競技

—우리選手團 뉴델리 善戰을 激勵함

이긴다는 것의, 배워 오겠다는 책임감이 넘치는 가운데 아시아경기에 출전할 우리 선수단이 어제 결단식을 가졌고 내일 뉴델리 壯途에 오른다. 선수단을 격려하는 국민의 기대와 축복도 크다.

앞으로 1주일 남짓, 아시아경기 발상지인 인도 뉴델리에선 오는 19일부터 평화와 젊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었다. 아시아인 상호간의 국제적인 존경과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된 이 대회는 초기에 비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비약적인 아시아발전의 상징 같다.

상승세의 우리 스포츠는 아시아 상위권을 자랑스럽게 지켜왔다. 이 「공든塔」은 국력신장이 뒷받침한 땀의 結晶이라고 할수 있다. 제9회 대회에서도 힘의 과시가 거듭 눈부시게 전개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선수단의 책임은 어느때 보다 무겁다. 국위선양을 위한 국제스포츠 경쟁은 날로 치열해 간다. 게다가 우리는 4년뒤 제10회아시아경기와 88년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할 벅찬 사명을 안고있다. 따라서 선수단은 合心과 최선으로 다음 세가지목표를 꼭 달성, 개선할것을 기대하고싶다.

첫째는 「場內의 메달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금 목표는 종합 3위 입상이라고 한다. 아시아스포츠는 일본과 중공이 뜨거운 頂上싸움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기 8連覇의 일본은 중공세의 위협에 불안한 실정이다. 「10억의 人海」를 배경으로 중공은 이번대회에서 정상을 노릴 만큼 만만치가 않다.

우리의 3위목표도 험난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2위 두차례, 3위 세차례를 차지했다. 중공이 참가하고부터 3위 이상은 바라볼 수 없는 처지다. 뉴델리대회 주최국인 인도의 거센 도전이 우선 벅차다. 한국이 4위에 머무른것은 대개 주최국에 밀렸기 때문이다.

스포츠고립에서 벗어 나려고 몸부림치는 북한의 실력 또한 가볍게 넘겨볼수 없는 「變數」다. 몇 종목에 걸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예측키 어려운 「남북대결」이 벌어 질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상대는 아님을 안다. 20억원을 들인 2백60여일의 強訓이 밑받침이 되고 특이한 정신력으로 밀어 붙인다면 남북대결의 승리는 꼭 쟁취된다고 확신한다.

둘째로 「場外의 스포츠外交」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스포츠가 자주 정치오염으로 곪머리를 앓지만, 스포츠外交의 본질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데 있다. 아시아경기도 평화지향이다. 서울의 스포츠廣場은 모든 나라에 개방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시켜 줄 좋은 계기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아시아경기연맹(AGF)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로 그 조직이 바뀐다. 86년에 열릴 서울 아시아경기는 이 조직 아래 치러진다. 각 경기종목의 연맹에서 유리한 자리를 미리 차지해야할 것이다. 북측의 악의적인 방해가 예상되나, 우리의 성숙한 스포츠외교가 꼭 결실을 거둬들일것을 기대한다.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를 유치할때의 열의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장애도 물리치고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스포츠외교의 성과는 바로 서울올림픽 성공을 다짐하는 전초전임을 새겨 둬야한다.

세째로 86년과 88년의 두대회에 대비한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다. 인도대회는 많은 교훈을 남겨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당국과 임원은 대회의 운영과정을 세심하게 훑어보고 배워야 한다. 長·短點을 분석하고 혹시라도 어떤결함이 보인다면 좋은 反面鏡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경기장들의 시설, 경기의 관리·진행과 외국손님을 수용하는 모든 일을 86년의 試金石으로 삼고 서울대회 성공의 礎石을 다져두길 바란다. 이것은 눈에 안보이는 선수단의 값진 성과로 나타날것이다.

4백여명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하며 뉴델리 승전보가 잇달아 터져나오리라는 희망이 부풀어 오른다. 온국민과 현지印度를 포함한 많은 해외교포들의 열띤 성원, 큰기대가 계속 따를것이다. 유감없는 최선의 건투있기를 빈다.

力學構圖 變함없을까

—中·蘇接近후 눈길끄는 周邊狀況

韓半島주변의 강대세력간에는 최근들어 미묘한 관계변화의 징후를 짙게 나타내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中共의 「12全大會」후에 이런 변화는 두드러지게 감지될수 있고 또 지난달 北京에서 열린 中·蘇관계正常化를위한 예비실무회담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은 점차 구체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동향과 함께 우리의 큰 관심이 쏠리는것은 中·蘇관계의 「變化」여부다. 최근 北京에서 열린 관계정상화를 위한 中·蘇실무회담은 「원만한 진전」을 보았다고 中·蘇양측은 논평하고 있다.

그 會談을 열면서 예상외로 中共은 「아프간」사태를 再開조건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대신 실무회담서의 國交정상화의 조건으로 아프간에서의 소련軍철퇴, 中·蘇국경지대및 몽고에서의 소련주둔군의 대거감축,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침공지원 철회등을 내세웠다.

이는 中共이 對蘇접촉 再開의 조건을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후퇴시키면서 先접촉後타결의 원칙을 관철하려고 한것이 아닌가고 분석된다.

北京당국의 對蘇接近 旋回이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다. 첫째는 「제3세력」으로의 복귀와 對美·蘇관계조정, 둘째는 毛澤東사상에서의 이탈과 實用主義노선의 추구, 세째는 「4大근대화計劃」의 추진을 위한 接境주변의 긴장완화 촉진을 들수있다.

中·蘇실무회담에서 中共은 소련의 接境지역주둔軍의 감축을 이미 요구했다한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 소련은 확인한도를 표명치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中·蘇가 이지역의 긴장완화에 前向的자세를 취했다하므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中共이 4백20만명에 달하는 現兵力중 百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것도 中·蘇관계 추이에 어느정도 낙관적인 전망을 세웠기때문이 아닌가고 여겨진다.

그러나 中共이 對蘇接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소련과 國境貿易을 再開하는데까지는 이르렀다해도 東北亞에서 소련의 勢力팽창은 중지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中·蘇간의 軍事的 긴장이 현실적으로 조속히 완화될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발언에서 엿보이듯, 소련은 브레즈네프 共産黨서기장의 全般的인 세계긴장완화나 軍縮에는 계속 관심을 갖는듯 하면서도 對美태도에선 오히려 冷戰을 촉진하는 동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소련은 中·蘇관계의 「완화」에 힘입어 對美자세를 硬化하면서 東北亞에서의 軍事力을 더욱 증대해 나갈 기세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이 처럼 對中共관계에서 완화된 緊張을 다른데로 「轉移」되는 경향을 현저히 나타내고있다. 결국 이런 상황변화는 韓半島주변에서의 緊張이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그 再配置 이상의 의미를 갖지않게된다고 말할수있다.

그뿐아니라 모스크바와 北京사이의 정치의 變質가능성 문제다. 中·蘇양국의 장래관계가 肯定的으로 변해가리라는 관측을 계속 낳게하고 있다. 이경우 우리의 關心事는 다름아닌 韓半島주변 4強체제와 그틀 중심으로 유지되던 勢力균형의 變質가능성 문제다.

아직 두드러진것은 없으나 勢力재편성이나 관계변화는 필연적으로 現狀재조정과 軍事力경쟁을 유발하기 쉽다. 美·日安保체제에 대한 中共견해에 후퇴조짐이 보도되고 美·蘇간에 軍事강경대결론이 심해지며 美國의 日本 軍事力강화·安保分擔 요구가 강해지는 것은 그 한波長으로 보여진다.

얼마전 蘇聯언론인과 관리가 국제회의 참석차 韓國을 방문한것을 갖고 일부 西方측보도들이 과대평가를 하려든다거나 北韓집단이 對中共傾斜와 對蘇비판태도를 보인것도 이런 視角에서 온 예민한 반응의 일면이라 할것이다.

하나 이런 變轉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韓半島의 緊張을 줄이거나 줄이려는 變數因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高潮와 強大勢力의 각축작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없지않을까 전망한다.

정부나 국민이 다함께 냉철하고 예리한 注視와 원근을 헤아리는 對應에 눈길·숨기·뜻을 더욱 모아가야 할 국면이라 할것이다.

政局往來

◆民韓黨의 「조건부참석」에 民正黨의 「단독強行」…

"고슴도치에 놀란 호랑이가 밤송이보고 놀라는格"

◆野측 반대로 제안설명만듣고散會

◆與의원… 實名制 異色질의 주목

◆이제는 忍耐의 한계선을넘었다

中央 노동위원장에 韓眞熙씨 連任발령

人事異動

經濟企劃院 · 勞動部 · 勞動委員會 · 農振公 · 國民銀行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새 용의자로 「牧師」 지명手配

校長부인 被殺사건 목격자 陳述과 一致
事件발생 두달만에 捜査 급진전

서울敎岩국교교장 부인 崔玉珠씨(49·서울道峰區水踰5洞519의1) 강도살인사건 수사가 발생2개월만에 급진전을 보이고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北部경찰서는 9일 목사 鄭모씨(40·사기전과 1범·경기利川)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이 鄭목사를 용의자로 보고 있는것은▲피해자 崔씨와 평소 친분이있고▲사건발생 직전인 지난 9월6일과 7일 이틀동안 서울을 다녀간뒤 4일후인 9월10일 경기利川지역의 집을나간뒤 행방을 감췄으며▲경찰의 수사가 압축되자 지난 10월12일 부인앞으로『이 편지가 마지막이다. 경찰에 잡히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라는 내용의 절박한 편지를 보냈고▲목격자가 기억하고있는 인상착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崔씨의 수양딸 尹成淑양은 범인의 체격과 옷차림이 鄭목사와흡사하다고 진술했고 사건발생시간을 전후해 여러사람에의해 崔씨집 주변에서 鄭목사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가 목격됐다는것.

경찰은 특히 사건당시현장주변에서 목격된 남자가 들고있던 가방과 같은 모양의 가방을 평소 鄭목사가 갖고 다녔으며 지난달 12일 경찰의 추적이 시작된것을 알게되자 은신중이던 경남梁山郡 모기도원에서 다시 행방을 감춘뒤 1개월이 가깝도록 나타나지 않고있는점을 중시하고 있다.

사건발생직후 범인은 崔씨 집 내부사정을 잘알고 있으며 복면을한채 아무말없이 참혹한 범행을 한점등으로미루어 면식범의 범행으로 추정했던 경찰은 崔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서 7년전부터 숨진 崔씨부부와 교회관계로 알게돼 친분을 가져왔던 鄭목사가 사건발생직후 잠적한 사실에 의혹을 품었다.

경찰은 지난달3일 형사대를 경기 利川으로보내 鄭목사의 부인등을상대로 사건후의 행적을조사한결과 鄭목사가 사건당일인 지난9월6일 상오8시께 서울에갔다가 다음날인 9월7일하오 9시께돌아왔다는사실을 밝혀내고 서울에서의 鄭목사행적을 조사했으나 평소자주들렀던 신도들집이나 교회등에 전혀나타나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인진술에 의하면 鄭목사는 이날 검은색하의와 흰색 반팔와이셔츠차림에 평소가지고다니는 어깨끈이달린 연한 갈색스포츠가방을 들고나갔다는것인데 이복장과 가방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고있다.

鄭목사는 9월10일상오 갑자기『기도원에 간다』며 하의2벌, 와이셔츠3착, 점퍼등 자신의 옷을 모두 싸들고 집을 나갔는데 추석을 앞둔 9월28일께 경남梁山郡下北面三甘里 강림산 기도원에서『당분간 집으로 돌아갈수없으니 참고 기다리라, 아이들에게 고기나 사주라』고 쓴 편지와함께 1만2천원의 돈을 보내 왔다는것.

그후 鄭목사는 연락이 없다가 10월10일께 경찰로부터『鄭목사가 崔씨피살사건에 혐의를 받고있다』는 얘기를들은 부인이『경찰이 찾고있다』는 편지를 보내자 10월12일상오 강림산 기도원에서 황급히 자취를 감춘것으로확인됐다.

이때 鄭목사는 기도원입구에있는 通度寺우체국의 10월12일자소인이찍힌 편지를 부인에게 보내왔는데 편지는『이편지가 마지막이다. 왜 쓸데없는 말을해 남편을 곤경에 빠뜨리느냐. 경찰이 찾아온다고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어디로가서 죽던간에 찾지말고 기다리지도말라. 경찰에 잡히면 무기아니면 사형이다. 미칠것 같다. 부부지간에 그럴수가 있느냐』는내용으로 평소와는달리 장황하게 쓰여있었다는것.

경찰은 그동안 전국각지의 2백80여개 기도원을 중심으로 鄭목사의 행적을 추적했으나 찾는데는 실패했다.

鄭목사는 75년 서울東大門區面牧洞과 敎岩洞등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신도들의 전도사로 일하며 불우이웃돕기를 주선하는일을 해왔는데 이때 「미원회」란 속칭 자선모임을 갖고있던 崔씨의 활동을 주선하면서 친분을 맺어온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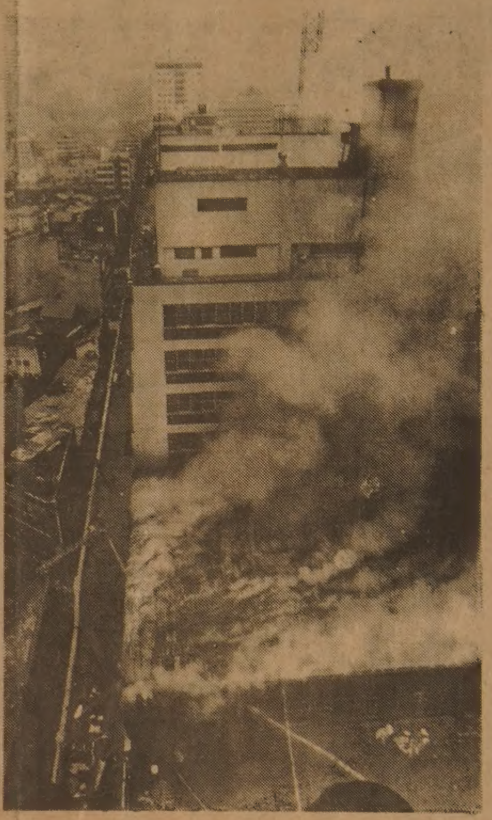
鄭목사는 안수를 받은 뒤 서울에 거주하는 여신도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현재의 교회를 세웠으나 그동안 교회운영난으로 빚을 갚지못해 교회부지와 건물이 담보로 잡혀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여신도 朴모씨(서울蘆原區西橋洞거주)에게 빌린8백만원을 갚지못해 사기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풀려 나기도 했다는것.

鄭목사는 지난해 여름교단의 지원을 받지못하자 다른 교단으로 소속을옮겼다가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다.

그뒤 미국으로 이민을 하려다가실패, 곤경에 빠져있었다는것이다. 【姜秉泰기자】

◇용의자鄭목사인상착의

키	168㎝ 가량
체격	땅땅하게 살이찌고 얼굴이 크며 목이 굵고 짧음
얼굴	이마가 넓고 눈이 작으며 네모진 얼굴(童顏) 동그머리·안경 올백형 나이(40세)보다 5·6세 젊게보임



◇대낮 호텔카바레 불 9일 하오1시30분께 서울中區仁峴洞2街73의1 풍전호텔5층 카바레 풍전회관(주인 吳世鎭·47)에서 내부수리작업중 불이나 카바레내부 2백70여평을 모두 태워 2천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꺼졌다. 이바람에 같은건물에 세든 주민·상인과 호텔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가뭄… 곳곳에 食水難
光州·釜山 汎시민 節水운동전개

【光州】光州시는 9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도물사정이 악화되자 시청 상황실에 비상급수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범시민절수운동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수도관계직원을 이날부터 전원 비상근무, 고지대비상급수체제완비 및 누수방지, 절수운동계도, 지하수개발사업등을 추진토록했다.

시는 상수도원인 동복·서곡등 3개수원지의 저수량이 10%선으로 격감한데다가 김장철을 맞아 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에 대비, 물아껴쓰기운동을 벌이기로 한것이다. 【聯】

【釜山】釜山시는 9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수도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오는15일부터 시내전역에 걸쳐 제한급수를 실시키로 했다.

市는 이에따라 海雲臺區·東萊區·南區및 釜山鎭區 지역에 15일부터 격일급수를 실시하고 기타지역으로 평소24시간 급수되던곳은 하루8시간씩 각각 제한급수를 하기로 했다.

市는 연말까지 충분하게 비가 내리지않으면 내년1월1일부터 2월말까지는 비상급수조치로 시내전역에걸쳐 3일제 급수를실시하기로했다.

釜山市 상수도는83%를 洛東江물에 의존하고있는데 최근들어 겨울가뭄으로 洛東江지류의 南江댐방류가 이미중단됐고 安東댐 물도 사용가능량이 앞으로 56일분 밖에 없어 현재 回東수원지의65일분 저수량까지합쳐도 심한급수난이 예상되고 있다. 【聯】

商街에 큰불
釜山土城洞 80여점포 태워

【釜山】9일새벽 1시20분께 釜山市西區土城洞2街 土城상가아파트1층에서 불이나 1백20여개 점포가 불타 2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경찰추정)를 냈다.

큰불길은 상오6시반께 50여대의 소방차에 의해 잡혔으나 상가마다 쌓아놓은 상품이 계속 타들어가 9일하오6시까지 계속 연기가 치솟고있다.

경찰은 불을 처음 발견한 아파트경비원 金태규씨(43)가『1층북쪽에 위치한 1백79호와 1백80호 점포에서 연기가 치솟았다』는 진술에 따라 이 점포 주인 嚴京國씨(43·잡화상)를 불러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土城상가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지하및 지상1층에 2백47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이날불로 80여개의 점포가 전소됐고 다른점포에 쌓아놓은상품에도계속불이번져 재산피해가 늘어났다. 그러나 2~5층에살던 주민5백여명은 비상계단을통해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이날 진화작업을하던 소방관 문동근씨(45)등 6명이 연기에 질식, 釜山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聯】

오늘부터 추워진다
일부지역 내일 零下로

입동(立冬)이 지나고도 한때포근했던 날씨가 10일부터는 쌀쌀해지기시작, 11일에는 일부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가 될것같다.

중앙기상대는 9일 우리나라 남북으로 깔려있던 기압골이 9일 하오와 10일상오에 걸쳐 대륙을 완전히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한두차례 비를 뿌린후 대륙에서 찬고기압이 밀려와 10일에는 5~6도, 11일에는일부지방이 영하로 내려가겠다고 예보했다.

이에따라 체감온도는 더욱 폭이커 크게 추위를 느끼게 된다.

10일 서울최저기온은 7도로 떨어지고 11일에는 1도로 추운날씨가 되겠으며 전국의 날씨는 흐린후 맑겠고 江原·忠淸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다.

11일에는 春川이 최저 영하2도, 淸州가 최저 영하1도로 예상된다.

朴啓東 피고에 징역1년 宣告

서울고법제5형사부(재판장 金永鎭부장판사)는 9일 光州美문화원 방화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 朴啓東피고인(30·高麗大제적)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됐던 丁淳喆피고인(27·농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5년6월을 선고했다.

5行뉴스

◆李孝石 기념관 建立키로

「메밀꽃 필 무렵」의작가 고 可山 李孝石선생의 문학기념관을 작가의고향인 강원平昌郡蓬坪면에 건립키위해 金東里 毛允淑 白鐵씨등 원로작가 5명이 8일 서울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大統領賞에 「한오백년」

【晉州】8일 막을내린 제32회 개천예술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연극부에 출전한 晉州三賢女高의 「한오백년」이 차지했다. 【聯】

◆春川市 청소계장 사망

【春川】8일밤10시30분께 春川시 陽路1街 관천상회 앞길에서 강원1다1982호 80cc오토바이를 타고가던 春川시청 청소계장 이운순씨(44)가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숨졌다. 【聯】

8·15때 묻은 文化財발굴企圖
大邱살던 日人 在日동포시켜… 60億臺추정

【大邱】8·15해방과 더불어 소장했던 60여억원어치의 문화재를 땅속에 묻어놓고 돌아갔던 일본인이 비밀리에 재일동포를 시켜 이 문화재를 발굴하려다 8일 경찰에 적발됐다.

大邱시경에 의하면 日本나고야市에 사는 모리도씨(86)는 해방전 大邱中區北城路2街35의15에 살다가 일본이 패망하자 자신이 모아놓은 도자기와 족자등 각종문화재 50여점(싯가 60여억원)을 모조리 살던집 땅속에 숨겨놓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모리도씨는 이사실을 지난8월 재일동포인 金順주씨(63)에게 털어놓고 발굴을 의논했다는 것이다.

이말을듣고 金씨는 大邱市大明洞1733에 사는 金益煥씨(28)를 통해 당시 모리도씨가 살던집 창고를 현재의 소유주로부터 세내고 지난달26일부터 밤을틈타 발굴작업을 벌여왔다.

金씨등은 밤에만 작업, 땅속 3m까지 파들어갔는데 수상히 여긴 동네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9일 일제때 이곳에 살았다는 모리도씨의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를 추적키로하는 한편 만약 이같은 문화재가 매장된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이미 발굴해 갔을지도 모른다고 판단, 이집의 소유변천 과정도 아울러 조사키로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문화재가 매장된것이 확인될경우 도굴당하지 않도록 大邱市당국과 협의하여 발굴작업을 할예정이다. 【聯】

腦수술女人 輸血거부 숨져
光州 「여호와의 증인」가족들 反對로

【光州】여호와의 증인신도인 임산부가 뇌수술을 받았으나 가족들이 수혈을 거부, 입원 7일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光州市東區山水1洞367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홍선신씨(28·여)가 지난2일상오 8시40분께 자기집에서 빨래를 걷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왼쪽머리를 다쳐 全南大병원으로옮겨 급성경막하혈종 뇌수술을 받았다. 수술직후 홍씨의 아버지 홍모씨(55)와 어머니를 비롯, 남편등이『본인이 남의피를 넣지말라고 했으니 수혈을 해서는안된다』고 의료진과맞서 수혈을 거부, 홍씨는 8일새벽2시50분께 숨졌다. 【聯】

선원 2명窒息死
接岸중 漁船불나

【群山】9일새벽 5시45분께 전북群山市藏米洞 수협냉동공장앞에 접안하고 있던 群山市仲洞273 유선석씨(31)의 소유 안강망어선17장흥호(71톤)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잠자던 선원2명(신원미상)이 질식, 숨졌다.

불을 처음 발견한 선원 오동환씨(48·충남保寧郡周浦面松鶴里725)에 따르면 새벽5시30분께 선원실에서 선원 2명과함께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위해 취사장의 전기스위치를 올리는순간 펑하는 소리와함께 선원실에서 불이나 번졌다는 것이다. 【聯】

邑面비치장부 줄여
내무부, 내년부터

내무부는 내년부터 일선邑面洞에비치하는 장부 5백27종중 3백40종을 감축키로했다.

이로써 邑面洞은 일지류21종 대장류1백32종 장표류34종등 1백87종만 비치하게되는데 내무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관리대상장부별로 관리번호를작성, 코드화하고 서식과 규격편철방법을 통일토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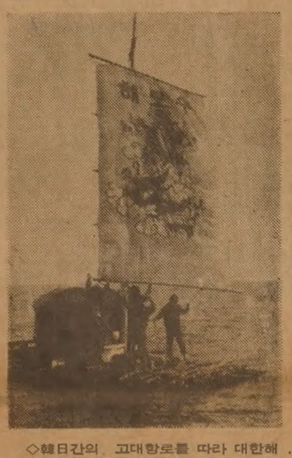
감축되는 장부를 보면 안점검표, 화재예방 점검일지및 날로점검표를 보안점검부하나로 관리하고 종합일지 일일결산 종합일지 방송일지 당직보일지등 18종의 일지류를 종합일지로 새로만들어 관리하는것 등이다.

세 史學徒 뗏목탐험나서
古代航路따라 大韓海峽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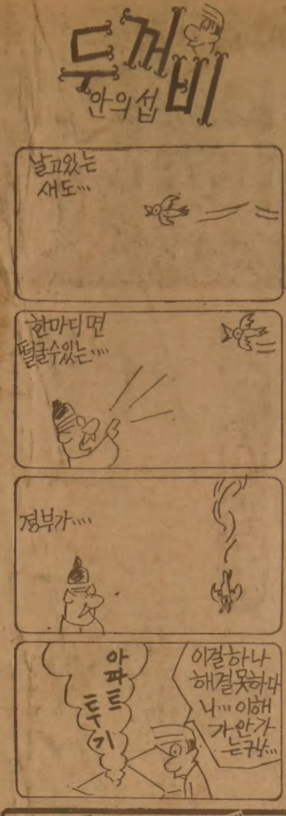
【忠武】한국의 사학도들이 1톤짜리 뗏목을 타고 한일간의 고대항로를 따라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탐험길에 나섰다.

高句麗시조 高朱蒙의 아버지의 이름을딴 「解慕漱」(해모수)호로 명명된 뗏목을타고 바람과 해류를 이용, 巨濟島와 日本九州간 2백93·7㎞의 횡단길에 나선 뗏목 탐험대는 尹明喆씨(28·대장 성균관대 대학원사학과 1년)와 朴晶彬(22·동국대사학과 4년) 李璟南씨(21·동국대행정학과2년)등 3명으로 우리문화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경로를추적, 답사하기위해 9일 상오7시20분 巨濟郡一運面臥峴里 에마을 선착장을 출발,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南海島·對馬島·이즈하라·一岐섬을 경유, 九州의 唐津항에 6일만인 오는14일 도착할 예정이다. 【聯】



◇韓日간의 고대항로를 따라 대한해협 횡단길에 오른 뗏목 해모수호. 【忠武=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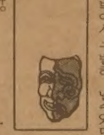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강아지 냄새」
서울專賣支廳 감시과 李永喆계장
洋담배 단속… 냄새·煙氣쫓으며 23년

양담배의 연기와 냄새를 쫓아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일까. 서울전매지청 감시과조사계장 李永喆씨(54·사진)의 코는 유난히 벌름거리는 것 같고 눈매가 날카로왔다.

李씨는 전매청근무 33년중 23년을 감시업무를 해왔다. 쉽게 말해 양담배단속이다.

그는 담배연기만 보고도 양담배인지 국산담배인지를 첫눈에 안다. 일반시민의 눈에도 담배연기란 똑같이 희뿌옇지만 그의 눈엔 색깔이 다르단다. 양담배연기가 확연히 밝다는것. 특히 「켄트」나 「라크」는 50m밖에서 구별해 낼수있다고 자신한다.



어둠침침한 술집등 연기로 식별이 잘안되는 곳에선 담배연기가 흘러나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코를 벌름거린다. 양담배에선 국산담배에 없는 독특한 향기가 난다. 이냄새를 감시직원들은 「강아지 냄새」라 부른다.

그가 양담배단속을 해온 동안 만난 가장 독한 사람은 붉은 담배를 꿀꺽 삼켜 증거를 인멸시켰던 어떤 중년. 고개를 비틀며 죽을상을하면서도 『뜨거운 코피에 목을 데웠다』고 딱 잡아떼었단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발뺌하는 타이프에도 2가지가 있다. 서툰 일본말로 일본관광객 행세를 하거나 전매청에 국산담배와 교환하러 간다고 둘러대는 수법이다.

그러나 양담배 갑속에 국산담배를 넣고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가끔 곤욕을 치르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큰소리를 치고 달려든다. 李씨는 이런 사람을 측은하게 여긴다. 양담배에 중독된 환자거나 허세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李씨는 양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책상속에 두고 피우는걸 잘 알고있다며 씩 웃는다.

그의 단속대상은 이런 단순흡연자보다는 주로 중간상인들. 거의가 PX유출품이고 단속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포착이 어려운게 특징이다. 된장항아리를 가장하고 운반한는걸 막대기로 두드려 소리를 듣고 잡기도 했다며 보따리장수들의 은닉술에 혀를 내두른다.

『왜 양담배 때문에 숨바꼭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우고 싶더라도 양담배연기와 함께 「국가경제」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金香宗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환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Eglinton
Millwood
Bayview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서울, 제2區間서도 1위

難코스 南松峴~三省서 결판

李弘植(경기)등 4명 小區間 신기록

28회 京釜大驛傳경주 2일째

◇密陽을 뒤에두고 密陽 스타트라인을 박차고 나선 역전의 건각들. 서울이 密陽—大邱간 70.6㎞코스를 3시간32분50초로달려 1위를 고수했다. 【대역전취재반】

【대역전취재반】서울이 첫날에이어 密陽—大邱 제2구간(70.6㎞)서도 계속 선두를달려 大邱에 1위로 골인했다. 이틀째를 맞은 제28회 釜山—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한국일보社·日刊스포츠·대한육상경기연맹공동주최)는 9일상오10시 盧乙煥密陽군수의 출발신호로 密陽—大邱간 70.6㎞코스에서 열띤 각축전끝에 서울이 金周龍 蔡鴻洛 鄭晩和등 주전들의 활약에 힘입어 3시간32분50초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釜山—大邱간(156.4㎞) 종합기록서도 7시간53분53초로 1위를 지켰다.

충남은 강호 李洪烈이 제2소구(楡川—淸道13.9㎞)에서 분투, 1위로 들어온후 제3소구서도 金鶴洙가 한때 선두를 유지했으나 제4소구에서 서울에추월당해 3시간34분40초로 서울에이어 2위로 골인했다. 그러나 종합기록서는 첫날 부진으로 3위(8시간1분04초)에 그쳤다.

한편 첫날 서울과선두다툼을 벌이다 29초차로 2위를 마크했던 경기는 朴京德이제 1소구에서 1위로 들어왔으나 후속주자들이 부진, 3시간36분03초로 3위를 기록, 종합기록서는 7시간57분35초로 서울에 이어 2위를 달리고있다.

경기는 제6소구에서 李弘植이 자신의 종전기록(31분34초)을 22초단축, 31분12초로 소구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朴英培(충남)와 엇비슷하게 골인했으나 최종 주자 朴鍾燮의 부진으로 충남을따돌리지 못했다.

경남은 제1소구에서 趙在龍의 활약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후속주자의 부진으로 4위에 그쳤다.

이날 레이스는 난코스인 제4소구(南松峴—三省11.1㎞)에서 결판났다. 충남은 제3소구까지 선두를지켜 서울 경기를 따돌리는가했으나 서울의 金周龍이 가파른 南松峴고개를 넘으면서 李善熙(충남)를 제친후 선두를 뺏어 앞서기 시작했다. 서울은 제1소구에서 吳在道가 4위에 그쳤으나 2소구에서 鄭鍾模, 3소구에서 蔡鴻洛이 따라잡은후 최종주자 李春根이 소구간신기록을 세움으로써 수위를 지켰다.

이날 李弘植(경기)과 柳文鍾(서울)은 제6소구에서, 徐炳大(충남)와 李春根(서울)은 제7소구에서 각각 소구간신기록을 세웠다.

제1소구(密陽—楡川)간에 있는 밀산교는 지난여름수해로 다리교각이 내려앉아 선수들만 다리로통과했으며 차량은 다리밑을 돌았다.

<제2일 기록> (釜山—大邱 156.4㎞)

①	서울	7시간53분53초
②	경기	7시간57분35초
③	충남	8시간1분04초
④	경남	8시간53분10초

<제2區間 기록> (密陽—大邱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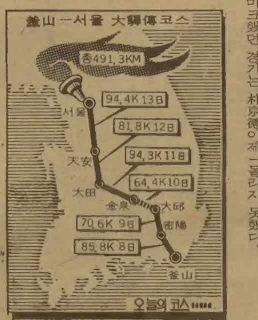
①	서울	3시간32분50초
②	충남	3시간34분40초
③	경기	3시간36분03초
④	경남	3시간48분36초

<小區間別 기록> ☆표는 신기록

소구	순위	선수	소속	기록
제1소구 (密陽—楡川 10㎞)	①	朴京德	경기	29분24초
	②	趙在龍	경남	30분0초
	③	尹得燮	충남	30분42초
	④	吳在道	서울	31분25초
제2소구 (楡川—淸道 13.9㎞)	①	李洪烈	충남	41분04초
	②	鄭鍾模	서울	41분09초
	③	金長日	경기	42분43초
	④	鄭渭植	경남	43분36초
제3소구 (淸道—南松峴 9.6㎞)	①	蔡鴻洛	서울	29분39초
	②	金鶴洙	충남	30분05초
	③	咸洪根	경기	30분12초
	④	兪貞濬	경남	30분38초
제4소구 (南松峴—三省 11.1㎞)	①	金周龍	서울	32분48초
	②	李善熙	충남	34분01초
	③	李承龜	경기	34분18초
	④	朴治鉉	경남	37분45초
제5소구 (三省—慶山 7.6㎞)	①	鄭晩和	서울	22분04초
	②	尹宗求	경기	22분32초
	③	朴海萬	충남	23분0초
	④	金東	경남	24분53초
제6소구 (慶山—晩村洞 10.3㎞)	☆①	李弘植	경기	31분12초
	☆②	柳文鍾	서울	31분31초
	③	朴英培	충남	31분54초
	④	金南石	경남	34분54초
※종전=李洪植(경기) 31분34초				
제7소구 (晩村洞—大邱 8.1㎞)	☆①	徐炳大	충남	23분54초
	☆②	李春根	서울	24분14초
	③	朴鍾燮	경기	25분16초
	④	柳尙根	경남	27분16초
※종전=蔡鴻洛(경북) 24분16초				

◇각팀 기록차

①~②	3분42초
②~③	3분29초
③~④	52분06초



盧密陽군수 選手들에 선물 崔淸道서장 교통 진두지휘

◆…盧乙煥밀양군수, 姜錫胤 밀양경찰서장은 제2구간 출발에 앞서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는 꽃다발과 귤을 각시도팀에게 나누어주었다. 또 이날 밀양읍내 중심가 다방들도 역전경주에 참가한 선수 임원들에게는 찻값을 받지않고 환대했으며 한국인보 비행기가 밀양읍 상공을 선회하는 가운데 연도에는 5천여 읍민들이 나와 선수들을 박수로 격려했다.

또 崔潤睦 淸道경찰서장은 경남북 道경계까지 나와 레이스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진두지휘했고 淸道모계중고교는 밴드부를 동원, 선수들을 맞았다. 마침 장날로 淸道읍내에 모인 인파가 모두 연도에 나서 선수들을 박수로 따뜻이 맞았다.

하와이서 친선경기 現代여자배구 출국

現代여자배구팀이 오는 10일부터 하와이에서 친선4연전을 갖기위해 8일 KAL편으로 출국했다.

現代는 호놀룰루에서 10일 브리감영大와 첫경기를 가지며 12·13일 이틀간은 하와이大와, 14일에는 하와이 힐로분교와최종전을펼친다.

現代는 金英淑등 주전 6명을 국가대표팀에 보냈으나 전국가대표선수인 金愛洙·李炳華등 화려한 멤버로 짜여져있어 하와이팀들과 좋은 경기를 펼칠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韓美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이다.

갈고 닦은 기량 힘껏 발휘

印아시안게임 出戰 선수단 어제結團式

내일 KAL편 壯途에

金총리 "승리의 기쁨안고 돌아오라"

◇각종목 대표선수들이 必勝과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제9회 아시안·게임(11월19일~12월4일·印度뉴델리)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이 9일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결단식을 갖고『최후까지 최선을다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자』고 다짐했다.

선수단의 장도를 축복하는 이날 결단식에서 金相浹국무총리는 치사를통해『아시안·게임은 30여년간 아시아지역 젊은이들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해왔다. 한국대표선수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싸워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개선해달라』고 격려했다.

鄭周永 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은『5백35일간 땀흘리며 연마한 힘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지난날 승리의 감격과 영광을 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상오9시 KAL전세기편으로 장도에 오르는 한국선수단 주장선수인 姜萬守는『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개최를 앞둔 출전이어서 어느때보다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에 두번째 출전하는 여자농구팀의기둥 朴贊淑은『78년이래 아직 한번도 中共에게 져본일이 없다. 이번대회서도 꼭 金메달을따오겠다』고 다짐했다.

78년 북한과 공동우승을차지한 축구대표팀 주장趙廣來는『한국축구는 어떤 종목보다 많은 적수를 갖고있다. 쿠웨이트·이란·이라크·중공·북한등 모두 만만치않다. 우리팀은 최근 부상선수들이 완쾌되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상승일로에 있다. 아시아의 왕좌를 꼭 지키고 오겠다』고 답했다.

육상 단거리의 호프로 각광받고있는 張在根은『徐末九선배가 10초34의 최고기록을 가지고있다. 태국선수들도 이와 비슷한 좋은 기록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겨루어 아시아 최고의 기록을 내고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선수단 金晟集총감독은『우리선수단은 어느때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마무리도 잘 된것 같다. 그러나 中共·북한등 공산권의 경기수준이 향상되었고 개최지인 인도의 여건이 좋지않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게하는 것이 이제 남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金鍾烈선수단장을 비롯한 4백6명의 선수단(임원1백26명 선수2백80명)이 차례로 소개되었으며 鄭周永 KOC위원장이 金鍾烈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했다. 결단식은 金단장의 답사에이어 주장姜萬守를 선창으로한 선수단맹세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이날 결단식에는 金相浹국무총리, 李源京체육부장관, 金容植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金澤壽 IOC위원을 비롯한 스포츠 관계인사들과 선수단 가족친지들이 참석했다.

選手團 壯行會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의 장도를 축하기위한 장행회가 8일저녁 泰陵선수촌에서 열려 결전을 앞둔 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하오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는 金鍾烈선수단장을 비롯한 출전선수·임원전원이 참석 했으며 李龍·송골매등 가수들이 출연,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했다.

世界사격대회 트랩부문 한국、女子단체 4位

【카라카스(베네수엘라) AP聯合】한국은 8일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속행된 제43회세계사격선수권대회 여자단체트랩에서 5백15점을 기록, 美國·스페인및 中共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美國은 이날 5백33점을기록, 남자단체서키트와 함께 대회첫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2위의 스페인은 5백25점을 기록했으며 銅메달의中共은 한국을 2점 앞선 5백17점을 마크했다.

蘇聯은 이날 현재 金20개 등으로 종합선두를 고수했다.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⑨

핸드볼

뉴델리 아시안 게임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남자핸드볼서 한국의 메달획득은 확실하다. 다만 목표인 금메달을따내느냐가 문제이다. 관계자들이 점치는 금메달획득 가능성은 50—50.

핸드볼은 지난1월 쿠웨이트친선대회우승(남자), 5월의 세계선수권예선우승(여자)등 잇단 승전보로 상승무드를 타고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무대서 남자보다 우수한성적을 보이고있는 여자핸드볼이 아시안게임종목에 끼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쉽다.

핸드볼 참가국은 9개국. 한국은 중공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함께 B조에 속해있고 A조에는 일본 쿠웨이트 인도 아랍에미리트등 4개국이 끼여 있다.

이 9개팀이 조별리그를 갖고 각조 상위 2개팀이 결승토너먼트에 진출, 준결승전을 갖는데 이경우 아시아무대서 최강자로 군림해온 노련한 일본과 힘의 공격을 무기로한 장신 중공, 또 석유붐을 타고 일약 강자대열에 합류한 쿠웨이트가 한국과 함께 패권을 다투게될 공산이 크다.

그중에서도 B조의 일본이 한국에 가장 힘겨운 상대.

일본·中共·쿠웨이트와 覇權다툼

메달 확신하나 金은 반반

日本과는 9번 싸워 全敗

◇한국남자 핸드볼 선수들은 일본과 중공의 장신벽을 깨뜨릴 다양한 속공전법을 익히는데 주력하고있다。

한국은 올들어 中共과의 3차례의 경기서 33—31, 33—28(1월 쿠웨이트), 26—23(3월세계선수권)으로 모두 승리했지만 일본에게는 이제까지 9차례의 대전서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지난3월 세계선수권대회서는 28—24 4골차로 패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서 일본을 꺾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합숙훈련을 통해 열세를 만회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왔다.

한국은 평균신장이 각각 9㎝, 5㎝씩이나 큰 중공, 일본과의 싸움에서 기존의 공격인 독특한 콤비네이션 세트플레이를 구사할 방침.

속공으로 승부를 걸되 안될경우 양사이드의 주포를 이용한 세트플레이를 벌이는등 5, 6개의 작전카드를 마련해 놓고있다.

『林英喆 朴秉洪등 개인기로 찬스를 잡고 李相孝 姜泰求의 슛이 평소처럼 만 폭발해준다면 해볼만하다』는게 李錦求코치의 얘기다.

또 한국의 장점은 선수 16명중 2명정도만 처지고 나머지 선수들 모두 주전으로 풀가동할수 있는 고른기량을 갖고 있다는점이다.

◇한국선수단
▲임원=柳在忠 李錦求
▲선수=李相孝 姜泰求 林英喆 吳世勳 崔太燮 朴秉洪 李尙再 裵德壽 姜在根 崔正鎬 金永男 林在權 林圭夏 李仁薇 沈禎萬 姜世容
【徐奭根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63>

안개속의 집 ⑳

꼼꼼한 살림꾼 주부일수록 집 수리하는 동안처럼 고역스럽고 참기 힘든 동안도 드물 것이다. 눈을 감아도 오히려 세밀화처럼 삼삼이 떠올릴수 있을만큼 오랫동안 길들여온 질서가 하루아침에 뒤죽박죽 잡동사니가 되고,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던 세간살이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뒹구는 현장에서 일군들과 거친말로 말다툼을 하고, 때로는 술잔도 하고 삿대질을 해가며 그들에게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지않는다고 본때까지 보여야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수지네 집수리는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빨리 끝나가는 느낌이었다. 넓은 정원을 유린하고 산적해 있던 얽히설키한 파이프들이 어느틈에 방바닥 사이로 벽사이로 감쪽같이 숨어 버리고 말았는가하자 이내 시험가동에 들어가 온집안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기시작했다.

당연한 일을 수지는 요술을 구경한 소녀처럼 즐거워했다. 유기사도 잠깐 철없는 계집애 앞에 선 마술사처럼 으스대보였다.

『그 많은 파이프들이 마침내 이 큰집의 동맥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듯한 소리였다. 수지는 철없이 앳되고 들뜬 기분으로 생각했다.

그 우람하고 더러운 사나이가 그 동안 동맥을 만들고 피를 돌게한 것은 그 큰 집뿐아니라 그녀의 몸뚱이까지일지도 모른다고.

그 사나이를 알고부터 그녀는 자주자주 자신속의 뜨겁고 활발한 피돌기를 의식해야만 했으니까. 때로는 그 피돌기의 너무도 왕성하고 방종함에 스스로 얼굴을 붉힌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막연한 불륜의 예감에 정신 없이 현혹될 때도 그랬고, 낮동안 멀리서 가까이서 끊임없이 유기사의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그의 더럽고 근면한 손을 어루만져보고싶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나 작은 욕망을 위해 속을 바싹바싹 태울때도 그랬다.

또는 아귀같은 다섯 아이와 병약하고 우매한 아내가 딸린 그 사내의 비극적인 삶에 동정의 눈물을 지을때도 그랬고, 밤에 몰래 그녀의 오랜 성녀의 탈을 벗고 욕망의 예감에 전율할때도 그랬다.

자신의 이런 왕성한 피돌기를 의식할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자선사업에 동분서주 쌓아올린 성녀노릇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꼭둑각시놀음이었던가를 알것 같았다. 그녀도 자신이 얼마든지 완벽하게 인자한 얼굴로 그러나 속으론 괴롭기가 몇은 것처럼 냉랭한 마음이 되지않고는 고아들을 안고 뽀뽀할수 없었다는 걸 알고있었다.

수지는 이런 새로운 자신의 발견에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뭔가 달라져야할 것 같았고 어쩌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자신의 힘으론 막을수 없을 것같은 생각이 들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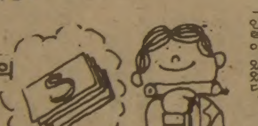
그녀는 두려웠다.

내 나이 지금 몇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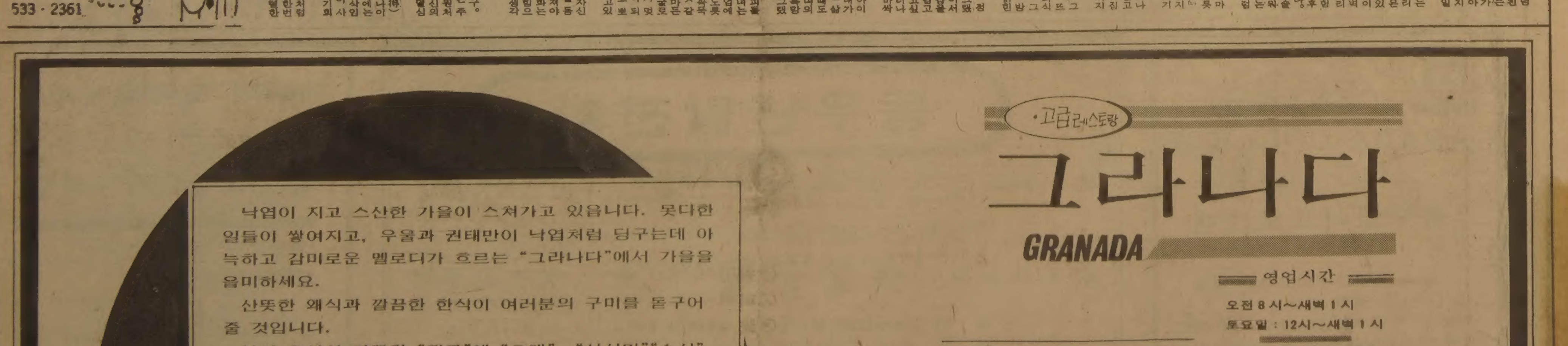
그럴때마다 그녀는 무슨 주문(呪文)처럼 또는 구원처럼 사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거기 열심히 매달리려들었다.

변화보다는 기득(旣得)의 안일에 감지덕지할 나이였다. 그러나 그 나이에는 또한 악마의 마지막 속삭임이 숨어 있었다. 지금이 사랑을 할수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지막 기회란 막차처럼 구태여 목적지없이도 한번 몸을 실어보고싶은 강렬한 인력이 있었다.


광고문의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낙엽이 지고 스산한 가을이 스쳐가고 있읍니다. 못다한 일들이 쌓여지고, 우울과 권태만이 낙엽처럼 딩구는데 아늑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그라나다"에서 가을을 음미하세요.
산뜻한 왜식과 깔끔한 한식이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따뜻한 "정종"에 "오뎅", "사시미","스시", 덴뿌라, 쓰끼야끼, 생선구이등과 여러가지 한식으로 건강을 돌보세요.

·고급레스토랑
그라나다
GRANADA
영업시간
오전 8시~새벽 1시
토요일 : 12시~새벽 1시
※일요일은 문닫습니다.
파킹장 오후 8시 이후 무료
※피로연, 회갑, 동창회, 각종모임, 계
예약 환영
923-3060
920 Yonge St.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資源관리法案 수정·補完"

民正 "野側의견 充分히 반영하겠다"

民正黨은 與野간 새爭點으로 부각된 資源관리법안을국회심의과정에서 야당측과 충분히 협의 문제점을 補完·修正할 방침이다。

陳懿鍾정책의장은 8일상오『이법안은 81년12월17일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폐기하면서 82년12월31일까지 代替法案을 마련키로한 與野간의 합의에따라 현행 「資源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立法化한데 불과하다』면서 『법안 1條 목적조항중 「장래에 있어서 필요시」란 표현에 일부의 오해가있다면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수있도록 고칠수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법안은 야당이 주장하는것처럼 국민의권리·의무를 제약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비상시에 대비,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훈련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成案된법안』이라고 강조했다。

李鍾賛 총무도 『현재 국회국방위에 회부된 資源관리법안을 公開, 심의토록 하겠으며 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운영위로 소관상위를 바꿀수도 있다』고 말하고 『誤解의 소지가있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등을붙여 오해소지를 없애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良熙 民正黨국방전문위원은 『이 法에따라 중점관리대상이되는 業體수는 3천5백개사정도이며 人的자원도 3만6천명정도』라면서 『立案과정에서 대외적인 문제등을 고려, 당초 비상대비법이라는 명칭을 자원관리법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民韓黨은 9일 상오 黨務회의를열어 정부가낸 자원관리법안의 違憲·不法性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법안에 관한 당의 방침을 확정키로했다。

民韓黨은 8일 金珍培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이법안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 아니할수없으며 정부는 구구한 변명을 할게아니라 이법안을즉각 철회해야 할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 또『이법안이 헌법35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대한 제한은 국가안보에대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돼있음에도불구 막연하게「장래필요시」운운하여 막대한 人的·物的자원의 통제를 白紙위임한것』이라고 주장, 『국회에서 폐지된 保衛法을 부활시키는듯한 이법안을 내놓은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中共、對蘇和解를 정책에 반영

「美·日안보」支持철회

부수상 萬里등 태도변화

【東京9日=聯合】中共은 최근의 中·蘇화해움직임을 그들의 대외정책에 반영, 對蘇군사견제를 목적으로한 美·日안보조약에 대한 종전의 지지를 철회했다고 北京의 일본소식통들이 7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美·日안보조약에 대한 이같은 中共의 극적인 태도변화는 中共정치국원들인 부수상 萬里、全人代상무위부위원장 廖承志등과 6일 北京에서 만난 한 일본사절단에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中共방문사절단의 단장인 오가와·헤이시로(小川平四郞)前中共주재 일본대사는 廖承志가『中共은 美·日안보조약을 결코 반대하거나 지지하지않는다』고 말했음을 수행기자들에게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中共지도자들의 발언은 지난78년『日本의 방위력강화와美·日안보조약은 당연한 추인』라고 했던 中共최고실력자 鄧小平의 지지선언을 사실상 철회한것으로 보인다。

東京의 외교분석가들은 이같은 中共의 정책상의 수정은 최근 中·蘇 양共産大國간의 화해움직임을 반영하는것이라고 풀이했다。

北京의 일본소식통들은 또 中共당국이 20년래 처음으로 中共유학생들을 모스크바에 파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北京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이날 베풀어진 소련 볼셰비키혁명 65주년기념 리셉션에서 오랜만에 中共문화상 朱穆之등 中共고위관리들이 모습을 나타내어 주목을 끈것으로 알려졌다。

◇첫선보인 蘇병력수송용 裝甲車 蘇聯의 최신형 병력수송용 장갑차가 7일 거행된 볼셰비키혁명65주년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첫선을 보이고있다。 【모스크바 7日AP聯=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061

베카溪谷 전선

이、새陣地구축

【베이루트WAM=聯】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북부베카계곡에대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이곳에 대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팔레스타인의 WAFA통신이 5일 전했다。

이 통신은 상당수의 이스라엘軍탱크、장갑차및 대포들이 지난24시간사이 호스바니도로를따라 레바논북부의 라샤야·알·와디지역으로 이동중인것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WAFA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베카계곡전선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일대 상공의 공중정찰도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投機근절 實務對委 설치

關係長官회의 "入住者다른 2천餘가구 告發"

정부는 8일 경제기획원에서 金埈成부총리주재로 姜慶植재무、徐相喆동자、金宗鎬건설부장관과 金聖培서울시장、李存九내무차관、鄭麗鎬상공차관、安武赫국세청장、金寶鎭총리실행정조정관、姜信祚주택공사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복덕방허가제▲서울江南일부지역에대한 투기지역고시▲아파트분양가격 자율화문제등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날 회의는①住公아파트를 전매 또는 임대한사람은 고발조치하고②민간 아파트를 전매·임대한 사람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며③분양가 자율화 복덕방허가제 투기지역고시등을 포함한 나머지 문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實務對策委員會를새로설치, 계속협의해나가기로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결과 당초 분양자와 실제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開浦지구 住公아파트 1차분 4천26세대중 1천5백38세대、果川지구 주공아파트 2차분 1천6백20세대중 6백41세대의 최초분양자등 도합 2천1백79명이 일차적으로 고발을 당하게됐다。이들은 조사결과 不法轉賣(임대포함)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규정에따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이들말고도 추가로 적발되는 불법전매자들은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정부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당초 분양가격으로 還收하는 조치는 선의의 입주자들을 고려,당분간 하지않을 방침이다。

투기지역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전매·임대여부를 가려내 重課稅 한다는 것외에 다른 조치는 강구되지 않았다。

첫實務對委 열어

한편 실무대책위원회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첫회의를 열고 관계 장관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사항들을 소관부처별로 정리, 오는11일 2차회의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韓美聯合司 4주년 全대통령、訪問격려

全斗煥대통령은 8일하오 창설4주년을 맞은 韓美연합사령부를방문、세네월드사령관으로부터부대현황을보고받고聯合司장병들을격려했다。

JCI회장등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8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베리·케네디 국제청년회의소(JCI) 세계회장부부등 제7차 JCI세계대회에 참가한 간부 37명(부인포함)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미글버거次官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8일 하오 청와대에서 로렌스·이글버거 美국무성 정무담당차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부산·서울「大長征」스타트

◇숨은 장거리 유망주들을 발굴해온 부산—서울간 大驛傳경주대회가 8일상오9시 부산시청앞에서 출발, 6일간 491·3㎞를 주파하는 大長征에 올랐다。 첫날 제1소구에서 경기 경남 충남 서울주자들이 2소구를 향해 역주하고있다。 【대역전 취재반】

"실제動員 규정안해"

政府、관리법解明 남용可能性 없어

정부의 한입법관계자는 8일 현재 국회에서 논란을빚고있는 資源관리법안의 성격에대해『戰時에대비, 人的·物的자원의 動員태세를 준비함으로써 전쟁을억제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라고표현한것은 법의목적설명을 위한것일뿐 동원의요건을 규정한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이법안은 실제동員이 아닌 동원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이며,또 平時준비법이자 순수한 행정법안이므로 남용될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現代戰에서는 모든국가자원의 신속한 총동원체제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위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등 기존 4개법은 그목적과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상시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예를들어 민방위법의 경우 일부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할 災難이있을때 防災·응급防災·구호·복구, 필요한 勞力을 지원하는데 목적이있어 대상이 人的자원에 한정돼있고 그범위에 드는 인적자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 자원관리법으로 기술자등 제한된 범위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확보, 준비하는데 목적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이법안의 제정은 현상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것은 거의 없으며 중점관리대상은 人的자원의 경우 萬단위이고 物的자원의 경우 百단위의 공장등 시설이 포함되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미국은 戰時동원법·식량및 연료통제법, 영국은 總防衛法, 일본은 軍需공업 동원법과 국가총동원법, 이탈리아、프랑스、自由中國등도 국가총동원법등의 動員관계법을 갖고있다。

오늘下午쯤 正常化

국회財務委

금융實名 거래법안을 심사할 小委구성절차문제를 놓고 空轉을해온 국회財務委는 與野가 정상화원칙에 의견을같이하고있어 빠르면 9일하오나 10일중 小委구성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財務委정상화는 그동안 小委구성에 불응해 오던 民韓黨이 8일 상오 열린 총무단·재무위원 연석회의에서 방침을 바꿔 實名制법안을 제외한 7개 금융관계 법안 심의를 위한 小委를 먼저 구성하고 실명제심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다。

社會漫評

"거 복구할것이 많은가요?!…"

地平線

위대한 문화재를 창조해냈다는것만으로위대한 민족이 될수는없다。나일강하류지역에 문명의 기적을 창조했던 이집트였지만,그기적을 구경하려면 런던이나 파리에가야만 하게됐으니 위대하다는건 그옛날의 일이다。오늘날 서양문명의 바탕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였지만, 역시 런던이나 파리에 가야만 그문화유산을 구경할수있게 돼 있다。▼중동에서 감히 맞설 적수를 갖지못한 이스라엘은 탱크와제트기를 몰고 아랍땅을 내집안마당 드나들듯 하고있다。동시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일대에 꽃피었던 찬란한 페니키아와 고대로마、그리고그리스문화의 유물들을 마구캐내서 가져가고 있다한다。레바논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있지만、그렇다고 위대한 문화유산을 자랑할만한자리에 서지못한 것이다。▼지난8월 유엔 문화정책회의에서 이집트는 영국에 대하여 대영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스핑크스의 턱을 반환하라고요구했었다。그뒤 9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는 15세기 멕시코의 아즈텍문명의 문화재인〈古星圖集〉이 감쪽같이 사라졌었다。멕시코인 열람자가 계획적으로 훔쳐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멕시코쪽에서는 거꾸로「영웅」대접을 받고있다。▼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는 두나라의 식민주의 정복활동의 기념비라고 할수있다。지금 일본大阪에서 문을연「동양도자미술관」은 일본이 20세기전반에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위대한 문화재의 집대성이라고 할수있다。이름은 동양도자미술관이지만 1천점의 소장품중에 고려자기와 조선자기가 85%인 8백50점이다。▼大阪도자미술관이 갖고있는 우리도자기들은 잘 알려진 安宅컬렉션을 물려받은 것이다。지난7일 선을 뵌 도자기중에는 우리 국립박물관에서도 볼수없는 명품들이 수두룩했다고 한다。재일동포학자인 李進熙씨는 특히 조선자기중에 뛰어난 명품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지난76년安宅컬렉션이 임자를 찾고있을때엔 3백억엔、그러니까 약8백20억원으로 평가됐었다。▼두말할것도 없이 安宅컬렉션은 우리의 고분들을 파헤쳐 강탈해간 도굴품들이 대부분이다。그러나 그중에는 우리의 국보3백72호도들어있다고 한다。6·25후의 혼란기에 흘러나간것으로 짐작된다。정신 바짝차려 다시는 위대한 유산을 도둑맞는 못난 민족이 되지말아야 할것이다。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이 제구실을 하도록 예산을 늘려 소장품을 사들이는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防衛費 원칙수정

日防衛廳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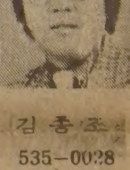
【東京=聯】일본방위청은84년도 예산부터 방위비의 GNP(국민총생산) 대비1% 초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방위비의 GNP1%이내 원칙을 정한 76년도 정부방침의 수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방위청은 경제성장률이 저하추세에 있기때문에 83~87년도 방위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4년도방위비의 GNP1%초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3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동우년말잔치

친애하는 동우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한 올해도 저물어가는 이 때!
우리들의 "동우년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12월11일(토) 오후 7 시~익일 1 시
장 소 : THE SKYLINE HOTELS
655 DIXON RD. (at HWY 27)
International Room "C" (1층)
밴 드 : 칼보밴드 가 수 : 초청 교섭중
*경품 다수 준비코 행운권추첨이 있음.
입장권 : 자문위원,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 745-5301 박진근 431-5958 이영만
759-8349 김진원 277-8985 고성호
653-6463 김남용 438-4519 신우원
261-2917 이완식 746-4220 조국현

동우회

제64회 모국동계체전
아이스하키
중등부 선수 선발

1월중순에 한국에서
체전에 참가예정.

일시 : 1982년 11월20일(토)
오후 9 시45분~10시45분
장소 : Chesswood 아리나
4000 Chesswood Dr.
Downsview
자격 : 1968년 이후부터 1970년
사이에 출생한자
※모든 장비는 각자 지참.
연락처 : ☎ 741-2522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이 종 원

「企業김치」성업

——전국에 50여개工場

"主婦대신 담가줍니다" 주문生産 뿌리내려

언제나 新鮮한 맛…아파트村서 큰 人氣

생활 西歐化의 새風俗圖 保管·衛生관리등 문제로

◇김치革命 서구화를 주내용으로하는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김장을 주문생산해주는 기업들이 뿌리를 내려가고있다. 그러나 김장공장에서 김장김치를 대량생산해내고있다지만 공정자체를 완전히 기계화하기까지는 「김치혁명」단계를 꿈꾸기는시기가 이르다.

「기업김치」가 활황 단계에 접어들고있다. 72년 첫선을 보인이래 10년만에대중화 1보직전까지 오는데 성공했다. 공장에서 김치를 대량으로 담가 시장에서 소매하는 단계를 넘어 「김장김치」까지 주문생산하는 과정까지 와있고 서울, 부산등전국 큰도시에 50여개의 공장까지섰다. 이상태로 기업성을 더연구해가면 수백년래 이나라 모든 아낙네들을 붙잡아매온 「김치담그기」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줄 가능성도 비친다.

「기업김치」가 급성장 할수 있었던것은 이 김치의 맛과질이 가정용보다 처지지 않는탓도 있지만 아파트생활로 김치독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졌고 비닐하우스에서 겨우내 열갈이 배추와 유채가 공급되고 있으며 김장담그기에 서투른 젊은주부들이 늘고있는 사회여건등에 힘입은것. 그러나 「김장혁명」에까지 가려면 아직도 기술적인 난제와 사회풍습등의 두터운 벽이도사리고 있는게사실이다.

기업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처음생긴것은 72년초겨울 서울龍山區元曉路4街에서 J식품이 배추20포기로 시작했다. 이 김치공장은 10년만에 2백70평의 元曉路공장 이외에 경기華城郡半月面에 부지 3천평건평7백평에 종업원 1백여명을 가진 큰기업으로 확장되었고 서울근교에도 20여개소의 김치공장이 생겨났다.

이김치공장들은 각종 김치를만들어 백화점, 슈퍼마키트에 내놓고 對日수출도 해왔으나 최근에는 주부들을대신해서 김장을 주문생산, 배달해주는 단계까지 사업규모를 확장하게 되었다. J식품에서 80년부터 김치주문배달을시작, 주부와 계약을맺어 젓갈·양념등의 종류와양을 원하는대로 넣어주고 익은정도까지 입맛대로조절, 10일에 한번씩 소량을 배달해주고있다. 80년에 4백세대가 주문했는데 81년에는 2천세대가 주문했다.

작년에 주문김장을했던 주부 朴敬淑씨(35·江南區驛三洞 서린아파트1동608호)는 보관이 편한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알맞게익은신선한 김치를 먹을수있는데다가 버리는김치가없어 더욱좋다」고 말했다.

주문김장의 가격은 5인가족 3개월분 50포기가 6만5천원정도로 가정에서 담그는 김장보다 다소 비싼편이지만 편리하고 또 각가정이 원하는 맛을 만들어 낸다는점에서 아파트지역 주민들에게는 특히 인기가 높은것 같다.

이들 김치공장들이 생산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총각김치·깍두기·백김치·보쌈김치등 8종류인데 J식품은김장때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1만2천포기를, 최근에 시작한 H식품도 하루에 1천3백포기를 팔고있다. (수출포함)

식품공장측에 따르면 공장김치나 주문김장을 가장많이 이용하는층은 20대주부와 50대주부, 또 완제품 감장뿐아니라 소금에절인 배추와 분말양념소금등 반제품도 많이소비되고있고 김장때가되면 아파트지역의 슈퍼마키트등을 중심으로 이반제품이 날개돋친듯 팔려나간다.

H식품은 지난10월중순께부터 汝矣島슈퍼와 東大門區徽慶洞슈퍼에서 절인 배추를 팔고있는데 하루에 5백쪽이상이 팔려나가고있고 汝矣島슈퍼의경우는 물건이 달려서 팔지못할정도다.

이에따라 배추를 아예절여서파는 소매야채상들도 등장하고있다.

김치맛에대한 집착과 김장담그기는 「어느 풍습보다도 시민생활에서 떼어낼수 없는 일이지만 급격한 도시화, 현대화의 물결에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成大가정대 黃慧性교수(60)는 「김치맛이 주부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김치공장이 기업화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김치의 맛은 간과 보관이 크게 중요한데 간이야 맞출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문제를 해결한것이 앞으로의 김치기업이 당면한 숙제가 될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치공장이 대형화하기는 했지만 김치생산공정은 아직 사람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는게 현실정.

현재 기계화된 것은 「양념 뒤섞는 기계와 「무우써는기계」뿐이다.

배추를 씻고 버무리고 써는 과정은 모두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있고 이에따라 위생관리문제가 대두된다. 공장이라기 보다는 작업장에 불과하다.

가격도 대량생산하는데 비해 아직 크게 저렴하다할수도없는 편이다.

금년에도 김장을 주문할계획이라는 어느60대주부는 「아이들이 모두 출가해 따로살기때문에 많은 김장을 할필요도없고, 아파트에서는 김치독을 묻을 수가 없어서 김장을 주문하지 않을수없다」고 말하고 「김장때면 이집저집의 개성있는 김치를 나누어 맛보고 김치가 익으면 손님을 초청하던 때가 그리울때도있다」고 사라져가는 김장풍속을 아쉬워했다.

「기업김치」등 영향까지 있어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서 김장감으로 팔려나가는 무우, 배추의양이 매년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는데 서울시내의 김장물량소요량은 지난79년 68만5천여톤에서 80년에는 49만여톤으로 떨어졌고 금년에도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 【徐華淑기자】

포근한 立冬날씨

例年보다 6度높아… 내일부터 "쌀쌀"

8일은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입동(立冬). 이날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여 서울지역의 경우 최저기온이 예년보다 6.5도나 높은 8.9도였다.

중앙기상대는 남쪽에서 밀려오는 기압골이 통과하는 9일하오 전국적으로 한차례 비가 온뒤 10일이후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날씨가 쌀쌀해질것으로 내다봤다.

기상대에 의하면 9일상오에는 9~13도, 낮기온은 17~19도가 되겠으며 10일아침에는 3~12도, 낮에는 16~20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8일상오 중부내륙 지방에는 짙은안개가 끼어 이날상오6시20분 金浦공항에 착륙예정이던 호놀룰루발 대한항공 050편여객기가 金海공항으로가서 착륙하기도 했다.

어음詐欺사건 結審

孔德鍾피고 4년求刑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관련피고인중 신병으로 결심공판이 연기됐던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서울고검 曺于鉉검사는 8일상오10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제5회공판에서 『孔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선고형량인 징역4년 추징금5천만원을그대로유지해달라』고검찰의견을밝혔다.

이어 孔피고인의 변호인인 全秉憲변호사는 변론을통해 『孔피고인이 日新제강회장 朱昌均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것은 부정한청탁과 관련된것이 아니며 회사채 지급보증역시 은행에 피해를 끼친게 아니므로 배임증재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孔피고인과함께 결심이 연기됐던 李圭光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은 12일 상오10시로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李·孔피고인에대한 결심공판을 가질예정이었으나 두 피고인 모두 신병으로 출석하지않아 孔피고인의 변호인 全변호사의 동의를얻어 孔피고인에 대해서만 결심공판을마치고 李피고인에 대해서는 지난6일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李圭光피고 심한복통…혈변 서울大병원으로 긴급 後送

췌장염·대장염등 신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李圭光피고인이 7일상오 심한 복통과 혈변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서울구치소 당국은 『李피고

美문화원 放火 抗訴審 첫공판

【大邱】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8일상오 大邱고법 형사1부(재판장·盧承斗부장판사)심리로 고법 1호법정에서 개정, 金鉉獎피고인(32)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에이어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있었다.【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JCI세계대회

金相浹국무총리는 8일하오 蠶室체육관에서열린 제37차국제청소년회의소(JCI)세계대회개회식에참석, 致辭를통해 『세계젊은이들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간의협력을 증진하며 국제분쟁을 해소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大生 2명

서울 冠岳경찰서는 8일 서울대생 郭海晛군(22·사회학과4년), 金容民군(23·무역학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慶熙大여학생 1명

서울淸涼里경찰서는 8일 慶熙大의대간호학과4년 鄭善姬양(21)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불온 油印物혐의 忠北大生 1명구속

【淸州】淸州 西部경찰서는 8일忠北大중문학과3년구자행군(21)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구속했다.

구군은 지난 4일 하오3시50분께 忠北大 사회과학대학강동 강의실에서 학술원장, 申泰煥박사가 강연을 하고있는 사이 불온유인물 2백장을 살포, 시위를 기도한혐의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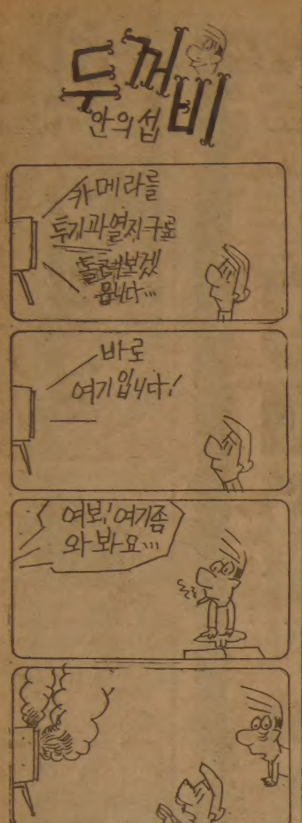
교내소요 관련혐의 全北大生 2명구속

【全州】全州경찰서는 8일 全北大공대토목과 4년 金會南군(22)과 농대 축산과 2년 許정군(22)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3일 캠퍼스에서 교내소요와 관련, 이를 주동한 혐의이다.【聯】

새勞總委長 金奎壁씨

한국노총은 8일하오 서울汝矣島 한전회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새위원장에 金奎壁 현위원장직무대리(관산노조위원장)를 선출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대낮 강도당한 孝心

홀엄마의 手術費 百44萬원

가정부 2年의 積金…銀行서 나오다 20代 2명에

홀어머니의 신경치료와 자난한 집의 자립밑천으로 소한마리를 장만하려던 가정부의 꿈이 산산이 깨졌다.

8일 하오1시께 서울麻浦區孔德2洞184의76주택가 골목길에서 田明順양(22·서울麻浦區 孔德2洞122의143)이 2명의 20대청년에게 우편포장지에싼 5천원전 1백만원과 1천원권 44만3천원등 현금 1백44만3천원을 빼앗겼다.

田양에 의하면 2년동안 가정부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朝興은행麻浦지점에 적금을 부었다가 이날 어머니 李順任씨(45)의 수술비와 자신의 시집밑천으로 기를 소를사기위해 해약돈을찾아오던중 집에서 1백여m 떨어진 계단에 이르렀을때 뒤따라온 20대청년이 발을걸어 넘어뜨렸다는것.

田양이 계단에서 굴러넘어지자 또다른 20대청년 1명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떨어뜨린 돈뭉치를 주워 넘어뜨린 청년과함께 달아났다는것.

고향인 전북 高敞郡 富安面 龍山里2區 298에서 2년전 상경, 가정부로 일해온 田양은 그동안 한달에 8만원의 봉급을 꼬박꼬박모아 적금을 들었었다.

◇"이골목길서…" 고향에부칠 현금 1백44만여원을 강도당한 田明順양. 강도당한골목에서 눈물을 흘리고있다.

田양은 이날 은행이없는시골집에 우체국을통해 송금하기위해 모두 현금으로 바꿔 은행포장지에 싸뒤 귀가하던길이었다.

고향에는 홀어머니가 농사일을하다 발을다쳐 치료를받지못해 발가락 절단수술을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송금하려 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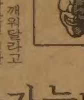
8남매중 장녀인 田양은 아버지가 4년전 간암으로 숨진뒤 가정부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여동생의 등록금으로 3개월마다 3만5천원씩을 보내왔다.

田양이 돈을 뺏긴 골목길은 찻길에서 4백여m떨어진 한적한곳으로 당시 골목길에는 행인이 하나도 없었다.

경찰은 田양의말에따라 체크무늬 T셔츠차림의 20대청년과 머리가 약간긴 20대청년을 수배했다.

田양은 사건당시 범인들의 칼에 손가락을 약간 다쳤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칼을 수거했다.

진정한 庶民



서울西大門區廳 청소원 魯基珍씨

4가족잃은 슬픔가누며 "더 誠實히"

서울西大門구청 가로청소원 魯基珍씨(40·사진·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363의6)는 지난달28일 평소보다 늦은 상오6시께 잠을깼다. 한달에 4일밖에 놀지 못하는 청소원들의 체육대회가 水色역옆 공터에서 열리는 날이었다.

魯씨는 弘濟洞일대의 청소를맡은 27명의 작업반장. 평소대로 아내 鄭判任씨(35)가 전날해놓은 아침밥을 차려먹고 연립주택 아래층의 부모님 방문을 열었다.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자는 3형제의 막내인 喃寅군(9·延加국교3년)이 야하려 간다며 일찍 깨워달라고 했었다. 방문을 열자 방안엔 연탄가스냄새가 가득했다.

이웃에사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고 2층 옆방에 세준 신혼부부에게 부탁, 부모와 3형제를 들어냈다. 그뒤로는 뭘 했는지 기억이 없다. 이웃의 승용차로 3형제가 실려간것 같다. 출동한 119구급대차 2대에 아내와 함께 부모를 1명씩맡아 태우고 세브란스병원으로갔다. 산소호흡기가 모자라 다시 부모를 적십자병원에 모시고 갔으나 이미 늦었다고 했다. 3형제중 장남 翔稻군(14·漢城中1년) 2남 濯宗군(11·延加국교4년)은 숨지고 막내는 지난4일 퇴원했다.

이렇게해서 그는 가족4명을 한순간에 잃었다. 심장이 약한 아내는 밥도 못할만큼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다. 지난7월 은행담보로 겨우 마련한 연립주택의 남은 연탄보일러통을 전날 새로 갈아끼운것이 잘못이었다.

전남 咸平에서 농사짓다 상경, 74년부터 청소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수입은 15만6천원. 아내도 술안주용 밤까기등으로 한달 7~8만원을 벌어 생활은 고생스러워도 마음은 항상 부자였었다.

아이들은 이틀만에 碧蹄에서 화장 장례를 치르고 부모는 그다음날 龍尾里시립묘지에 나란히 모신뒤 주위의 만류도 뿌리치고 삼우제를 지낸 5일부터 평소대로 다시 작업에 나섰다. 주위사람들은 그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가족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참는 사람들이 흐히 그렇듯 눈이 가늘어지고 빛이 번쩍인다. 그리고 괴로운듯 되뇌이는『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하니까』란 그의 넋두리에 서민의 강한 생명력이 체념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을 느낀다. 【任哲淳기자】

남여노소 보약을잡수실 시기입니다

중공산 진품 *우황청심환 도매가격 $15.00

643 A- BLOOR ST. WEST, TORONTO〈신용조합옆〉 B)536 6854 R)743 0752 한의사 서춘봉

하르빈한약상사

서울、金周龍등 小區間 新기록

28회 京釜大驛傳경주

釜山·密陽 제1구간 京畿·忠南과 각축끝에 先頭

【대역전취재반】 장거리레이스의 대동맥 제28회 釜山—서울間大驛傳경주대회가 8일상오9시 釜山시청앞광장에서 崔鍾鎬 釜山직할시장의 출발신호로 서울, 경기, 충남, 경남등 4개시도 건각들이 출발,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첫날 釜山—密陽間 85·8㎞ 제1구간 레이스에서 서울은 金周龍, 鄭晩和, 蔡鴻洛등이 각각 소구간 신기록을 세우는데 힘입어 4시간21분03초로 선두에 나섰다. 2위 경기는 4시간21분32초, 3위 충남은4시간26분24초로 골인했다.

이번대회에는 당초 5개팀이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충북이 선수부족등이유로 돌연 기권, 4개팀이 열전을 벌이게 되었다. 각팀은 釜山—堂里간 제1소구(10·7㎞)에서 맹장들을 기용, 처음부터 각축전을 편 끝에 경기가 선두, 서울 2위, 충남 3위 순으로 제1소구를 통과했다.

서울은 첫주자 吳在道의 부진으로 2위에 그쳤으나 제2소구에서 鄭鍾模가 쾌주, 베테랑 朴京德(경기)을 8초차로 앞질렀다.

서울과 경기는 쫓고쫓기는 열전을 거듭, 제3소구에서 경기는 신예 李承鎬의 분투로 서울의 柳文鍾을 제치고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4소구에서 경기 유정준이 서울의 金周龍에게 추격을당해 二北에 나란히골인했다.

金周龍은 이구간에서 32분58초(종전33분16초)로 대회 첫구간 신기록을 수립했다. 제6소구에서 서울의 鄭晩和는 구간신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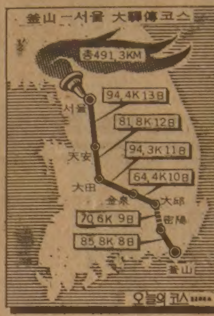
서울은 제7소구에서 蔡鴻洛이 3번째 구간신기록을 세우면서 경기를 따돌렸으며 마지막 8소구에서 양팀은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기선을 잡은 서울의 李春根은 송준규(경기)의 맹렬한 추격을 22초차로 뿌리치고 密陽에 선두로 골인했다.

한편 충남은 金鶴洙, 李洪烈등 주전들이 초반에 부진, 3위에 그쳤으며 고교생들 주축으로 한 경남은 있는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날 다소 흐린날씨였으나 산들바람이 불어 경기에알맞은 조건이었다.

◇마라톤 中興을 걸고 釜山시청앞 출발선에서 崔鍾鎬부산직할시장의 출발신호와 함께 북상길에 오른 京釜대역전선발주자들。왼쪽으로부터 서울 吳在道, 경남 金鍾道, 경기의 김장일, 충남 金鶴洙。【대역전취재반】



<제1區間 기록>

◇제1區間(釜山~密陽 85·8㎞)
①서울 4시간21분03초
②경기 4시간21분32초
③충남 4시간26분24초
④경남 5시간04분34초
(☆표는 대회신)

<小區間별 기록>
(☆표는 대회신)

◇제1소구(釜山~堂里 10·7㎞)
①김장일(경기) 32분49초
②吳在道(서울) 32분53초
③金鶴洙(충남) 32분56초
④金鍾道(경남) 37분02초

◇제2소구(堂里~龜浦 11·5㎞)
①鄭鍾模(서울) 33분33초
②朴京德(경기) 33분45초
③李洪烈(충남) 33분56초
④金南石(경남) 39분55초

◇제3소구(龜浦~金海 13·1㎞)
①이승구(경기) 40분02초
②柳文鍾(서울) 40분44초
③朴商萬(충남) 41분18초
④金昌洙(경남) 47분43초

◇제4소구(金海~二北 10·7㎞)
☆①金周龍(서울) 32분58초
②유정준(경기) 33분32초
③尹濟基(충남) 34분58초
③金東大(경남) 37분11초
※종전기록=柳文鍾(서울) 송준규(경기) 33분16초

◇제5소구(二北—進永 8·1㎞)
①尹得燮(충남) 24분30초
②윤송구(경기) 24분37초
③嚴焞鉉(서울) 25분16초
④金性炳(경남) 29분0초

◇제6소구(進永—守山 12·3㎞)
☆①鄭晩和(서울) 36분56초
②이희식(경기) 37분15초
③李嘉熙(충남) 37분57초
④李相黃(경남) 44분21초
※종전기록=蔡鴻洛(경북)37분11초

◇제7소구(守山—上南 12·9㎞)
☆①蔡鴻洛(서울) 39분21초
②원종혁(경기) 40분16초
③裵銀煥(충남) 41분14초
④李洙東(경남) 47분26초
※종전기록=金종윤(경북)39분37초

◇제8소구(上南—密陽 6·5㎞)
①俞炳觀(충남) 19분15초
②宋준규(경기) 19분16초
③李春根(서울) 19분22초
④柳尙根(경남) 21분56초

◇각팀 기록차
①~② 29초
②~③ 4분52초
③~④ 38분10초

경남、特攻작전펴 選手확보

◇…역전대회에 매년 출전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지못했던 경남은 올해에 선수부족으로 출전이 어려웠으나 崔鍾岩 경남육상경기연맹사무총장의 특공작전으로 가까스로 대회에 참가할수 있었다。

崔국장은 대회에 꼭참가해야겠다는 집념으로 6일부터 선수들의 소집에 나서 金鍾현씨(進永여중교사) 임창부씨(陝川교육청)등 지도자들의 협력을얻어 간신히 선수단을 구성했다。

특히 지난날 장거리선수로 활약했던 金鍾현씨는 馬山체전에이어 이번에도 발벗고나서 경남육상발전에 큰힘이 되었다。

수많은市民들 박수 密陽은 축제분위기

◇…대역전경주 제1구간인 釜山—密陽간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첫구간 종착지인 密陽은 축제분위기。

密陽읍사무소앞에는 密陽부녀회원들이 나와 선수들에 약수를 서비스했다。

進永에서는 進永高 육상부를 비롯、학생 수백명이 나와 경남선수들을 응원했으며 守山에서는 東明中·商高학생들이 同鄕의 건각들에 박수를 보냈다。

崔鍾鎬 부산市長이 各市道선수에 선물

◇…崔鍾鎬 釜山시장은 釜山출발에 앞서 각시도 선수들에게 과일 한상자씩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釜山시육상연맹 金泰守회장도 기념타올을 각선수단에 나눠주었다。

또 國際商事에서는 선수와 임원 모두에게 육상화 한켤레씩을 전달、사기를 북돋웠다。

한편 마라톤후원회서도 선수단에 격려금 팀당15만원씩을 전달했다。【대역전취재반】

◇京釜 大驛傳 운영·취재본부
▲취재=吳道光(일간스포츠취재부장대리) 金云龍(일간스포츠취재부차장) 安秦煥(한국일보체육부차장) 朴榮弘(한국일보사진부) 李延元(일간스포츠사진부) 李東虎(일간스포츠체육부)
▲운영=池成鐸(사업부장) 崔道煥 崔龍源 李柱理 金祺大(이상 사업부)
▲수송=金德成(수송부장) 李炳範 成德鎬 徐泰敏 吳世雄 朴炳圭 朴文植 高昌榮 朴英鎬 金吉煥 吳永善 尹勝義(이상수송부) 呂泰吉(항공부장) 金海日 吳昌敎 朴炳太(이상 항공부)

◇대역전 구간표

▲제 2 구간 密陽—大邱 (70.6㎞) <9일10시출발>

구간	코스	거리	시간
제1소구	密陽—楡川	(10·0㎞)	(10시31분)
제2소구	楡川—淸道	(13·9㎞)	(11시12분)
제3소구	淸道—南松峴	(9·6㎞)	(11시42분)
제4소구	南松峴—三松	(11·1㎞)	(12시16분)
제5소구	三松—慶山	(7·6㎞)	(12시39분)
제6소구	慶山—晩村洞	(10·3㎞)	(13시11분)
제7소구	晩村洞—大邱	(8·1㎞)	(13시37분)
			(156·4㎞)

▲제 3 구간 大邱—金泉 (64·4㎞) <10일 10시출발>

구간	코스	거리	시간
제1소구	大邱—新洞	(19·2㎞)	(10시57분)
제2소구	新洞—倭舘	(11·4㎞)	(11시30분)
제3소구	倭舘—若木	(6·3㎞)	(11시49분)
제4소구	若木—扶桑	(10·7㎞)	(12시22분)
제5소구	扶桑—月谷	(10·3㎞)	(12시54분)
제6소구	月谷—金泉	(6·5㎞)	(13시14분)
			(220·8㎞)

▲제 4 구간 金泉—大田 (94·3㎞) <11일 9시 출발>

구간	코스	거리	시간
제1소구	金泉—新岩	(12·1㎞)	(9시36분)
제2소구	新岩—秋風嶺	(6·1㎞)	(9시55분)
제3소구	秋風嶺—黃澗	(9·5㎞)	(10시23분)
제4소구	黃澗—永同	(15·5㎞)	(11시10분)
제5소구	永同—楊江橋	(10·1㎞)	(11시41분)
제6소구	楊江橋—伊院	(11·5㎞)	(12시16분)
제7소구	伊院—沃川	(10·7㎞)	(12시49분)
제8소구	沃川—細川	(11·1㎞)	(13시24분)
제9소구	細川—大田	(7·8㎞)	(13시47분)
			(315·1㎞)

▲제 5 구간 大田—天安 (81·8㎞) <12일 10시출발>

구간	코스	거리	시간
제1소구	大田—儒城	(10·9㎞)	(10시32분)
제2소구	儒城—大平里	(16·2㎞)	(11시20분)
제3소구	大平里—燕岐	(11·1㎞)	(11시54분)
제4소구	燕岐—鳥致院	(7·4㎞)	(12시15분)
제5소구	鳥致院—全義	(15·5㎞)	(13시03분)
제6소구	全義—小井里	(8·4㎞)	(13시28분)
제7소구	小井里—天安	(12·3㎞)	(14시04분)
			(396·9㎞)

▲제 6 구간 天安—서울 (94·4㎞) <13일 10시출발>

구간	코스	거리	시간
제1소구	天安—成歡	(13·4㎞)	(10시37분)
제2소구	成歡—平澤	(11·0㎞)	(11시08분)
제3소구	平澤—西井里	(8·2㎞)	(11시30분)
제4소구	西井里—烏山	(10·8㎞)	(12시02분)
제5소구	烏山—餠店	(8·0㎞)	(12시25분)
제6소구	餠店—水原	(8·5㎞)	(12시49분)
제7소구	水原—軍浦	(12·5㎞)	(13시45분)
제8소구	軍浦—始興	(11·6㎞)	(14시18분)
제9소구	始興—서울	(10·4㎞)	(14시39분)
			(491·3㎞)

延大、올들어 첫覇權

大學농구폐막 東大눌러 3戰전승

제19회 추계대학농구연맹전은 延世大가 패권을 차지한 가운데 8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되었다。

전날 이미 우승이 확정된 延世大는 이날 東國大와의최종전서 전반 신장의 열세로 고전했으나 兪載學、金賢俊의 컴비속공으로 81—75로 역전승、3전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延大는 금년시즌 첫패권을 차지했으며 이대회서 2連覇했다。

한편 國民大는 漢陽大와맞서 후반 朴成大의 연속6골로 전세를 가름한후 金仁五의 숏과 金星旭의 리바운드로 91—70으로 대승、2승1패로 준우승했다。

漢陽大는 1승2패로3위、東國大는 3패로 4위를 마크했다。

◇최종일전적
국민대 91 (51—40, 38—32) 70 한양대
연세대 81 (42—39, 29—46) 75 동국대

▲종순위=①연세대 3승 ②국민대 2승1패 ③한양대 1승2패 ④동국대3패
◇개인상
▲최우수=金賢俊(연세) ▲우수=金仁五(국민) ▲미기=尹丙植(한양) ▲지도=金東園(연세코치)

새 챔피언에 메르세데스 WBC 플라이級

【로스앤젤레스AP=聯合】 세계권투평의회(WBC) 플라이급 1위인 도미니카의 엘레온시오·메르세데스(25)는 7일 동급챔피언인 멕시코의 프레디·카스티요(27)에 판정승으로 누르고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다。

프로野球 시범경기 12일부터 馬山서

프로야구 OB·베어스、三星·라이온즈、MBC·靑龍、롯데·자이언츠등 4개구단은 오는 12·13·14일 3일간 馬山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자체전력을 점검키위한 시범경기를 갖는다。

12일 첫날에는 롯데—MBC、13일에는 OB—MBC、14일에는 OB—三星전이 매일 하오1시30분 시작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⑧

역도는 역대 아시안 게임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 가운데 하나。한국이 첫출전한 마닐라 2회 대회서 劉仁鎬、趙本稷、金昌熙、金成集、高宗具등 5명이 금메달을 따냈다。3회 대회서는 李長優、李宅榮、5회서는 李宗燮、李亨雨、6회서는 尹錫元、金大珠、7회서는 元信喜、8회서는 安智榮등 모두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아시안 게임서도

역 도

安智榮、安孝爵등 2개의 금메달을 확신하고 있다。安智榮의 기록은 인상 158㎏、용상 200㎏、총계 3백58㎏으로 아시아 최고기록을 능가하고 있다。

安智榮은 자신의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금메달이 가능하다。

신체적인 조건이 서양보다 뒤지는 동양인들의 취약 종목은 1백10㎏급。安孝爵은 인상 160㎏、용상 190·5㎏、총계 350·5㎏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기록은 아시아 인상 최고기록 中共의 양·후아이·핑의 156㎏을 4㎏ 능가하는 것이다。인상 기록은 레바논선수에 0·5㎏ 뒤지고 있으나 총계에서는 安이 앞서있어 금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이 중량급서 강한 반면 북한은 경량급서 강세。52㎏급의 한경시와 하철복、56㎏급서 32세의 노장 양의영、60㎏급의 이회봉등은 금메달 후보。한경시는 세계최고기록 보유자이며 247·5㎏으로 아시아최고기록을 갖고있다。

52㎏급에는 한국이 출전치 않으나 56㎏급에는 李明洙가 출전、북한 양의영과의 대결이 예상된다。

安智榮·安孝爵등 2명 금메달 확신

◇금메달후보 安智榮㊧이 바벨을들어 올리고 있다。【鄭在斗기자】

경량급에선 北韓이 강세 현지적응과 음식이 문제

경량급에는 강호들이 많아 메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그러나 60㎏급의 李龍求는 연습때 인상 115㎏、용상 165㎏을 들고있어 연습기록을 유지해준다면 메달을 바라볼수 있다는것이 金準性코치의 전망이다。

金코치는『安智榮과 安孝爵의 금메달 획득은 거의 확실하다。북한이 경량급서 강한것이 사실이지만 日本、이란、中共의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 북한의 금메달 획득을 저지할경우 역도서 북한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역도는 경량급 경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북한의 메달획득규모는 초반에 판가름나게 되어있다。

한국은 90㎏급서 李光鉉과 金喆鉉이 출전한다。金喆鉉은 연습서 자신의 기록 140㎏보다 5㎏ 더 많은 150㎏、용상서는 10㎏이 늘어난 190㎏을 들고있어 연습기록을 고수해준다면 동메달 이상을 기대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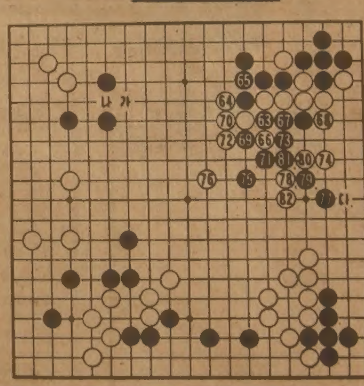
또한 82·5㎏급의 李康石과 申東徹 역시 기록 향상을 보여 320~325㎏ 사이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이정도 기록이면 금메달에도 도전 해볼만하다。

金準性코치는『현재 역도선수들의 컨디션은 최상급이다。모두 자신의 기록을 능가하고 있다。현지 적응과 음식 문제가 걱정이다。컨디션에 이상만 나타나지 않으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閔炳宅기자】

◇역도 선수단
李明洙 李龍求 金元春 李康石 申東徹 李光鉉 金喆鉉 安智榮 安孝爵

名人戰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第5譜 63~82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黑(7段) 河燦錫



黑63으로 좌변에서 벌어진 싸움은 우선 白76까지 白이 충분한 결과였다。수순중 白66으로는 69에 뻗는 수도 있어서 변화가 무궁무진하지만 李4단은 가장상식적인 수법을 택한것이다。

黑75가 부족이했다。섣불리 참고1도의 黑1、3은 黑5다음 白은 실전보의「간」자리를 붙여다본다。白「나」로 뻗칠수없어서 참고2도의 黑1이면 △표가 힘들어서 2이하의 축에걸린다。물론 이렇게까지 黑이 달아나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黑은 스스로 함정을 파게 되는것이다。

여기서 河7단은 볼소리도 야무지게 黑77。여태까지 잔뜩노리던 곳이었는듯、이 수는 과연 준엄무쌍했다。하기야 우변 白은「다」에 黑이 연홍

定石의 취사선택

참고 1도 참고 2도

색하나마 제자리에서 완생한다。河7단도 실은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 것인데 李4단은 굳이 白78이하 82로 일전불사의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국후 검토에서는『白이 솔히 살아두지 않고 무리한 저항을 한다』는 중론이였으나 다음에 黑은 이 절호의 찬스에서 결정타를 놓치고 만다。【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262>

안개속의 집 ㉙

식모애는 다짜고짜 코를 틀어쥐고 눈살을 찌푸리며 참견을 있는대로 연어 제쳤다。

「아서라。먼지 묻어요。」

「먼지가 문제예요? 아유 발고린내、사모님은 비위도 좋으셔。이 지독한 냄새를 모르고 마주 앉아 차를 드시니。무슨 남자가 양치도없는데다가 궁둥이까지 천근일까。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랬다고 냉큼들어와서 차한잔 마시는데 오래도 걸려。이제 두고 보세요。그 남자 발 고린내가…」

「쯧쯧 사람 그렇게 얕잡으면 못써。그 사람 나이로 봐서도 너보다 한참위야。」

「사모님 그런 사람 인간대접 해봤댔자예요。제 주제에 미제 코피에 인 박혀서 어쩔거예요。되려 못할 노릇이에요」

이러면서 집안내에 가득찬 먼지냄새 뒤집어쓴 머플러를 벗어서 탁탁 소리내어 소리를 털어냈다。수지는 식모애의 이런 훈계조의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후에도 유기사가 그 집에서 할 일은아직 며칠 더 남아있었다。

아침에 그 우람한 사나이가 들어서면 수지는 밤 사이에 괸 집안 공기와 그녀의 마음이 함께 산란한 파문을 일으키는걸 감지한다。

그는 누군가?고요한 물에 첨벙 뛰어든 조약돌인가?아니 싱싱한 잉어일지도 몰라。그야말로 괴어있는 죽은 물에 뛰어든 잉어처럼 생담스럽지 않은가。그를 비늘 빛나는 싱싱한 잉어로 미화할수록 그녀가 사는 물은 죽은 물이 됐다。그 살아있는 잉어가 뛰어들기까진 몰랐었다。자신이 사는 물이 죽은 물인줄은。

그녀는 또 멀찍감치서 일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남루한 생활을 이모저모로 상상하기를 즐겼다。다섯이나 되는 고만고만한 아이、줄줄이 무자로 가는 게 가장큰 즐거움인 산동네、안먹고 안쓰고 모아서 줄줄이 로커한테 한입에 털어넣는 병약하고 우매하고 질긴 여편네、그들사이에서린 언어로 표현할수 없는 동물적인 고뇌…。

그런 남루한 생활은 그녀가 감히 이해한다고는 할수 없어도 그 남루한 생활에만은 적어도 환상의 여지가 있었다。

수지는 그로부터 기름때문은 옷과 함께 남루한 생활과 연동가까지를 하나씩 하나씩 마침내 나신(裸身)에 도달할 때까지 벗겨내는 공상을 즐기기도 했다。

상상속에서 마치 태초의 남자처럼 순수해진 그에게 그녀는 강한 친화감을 느꼈다。그와 더불어 정답게 전원해 보고싶단 조바심이 그녀를 나사못처럼 조였다。

사랑 같은 건 하고싶지 않았다。그녀에게 사랑이란 습적이고 일상적인 그저 그런거였고 정욕은 그로 부터 일탈한 신선한 그 무엇이었다。

욕망을 느끼는 순간이란 얼마나 매혹적인가? 오로지 정욕만이 그녀의 빈마음을 충만시켰다。

그러나 수지를 참으로 매혹시킨 일은 그와의 정사를 꿈꾸기 위해 자신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었다。자신의 성녀의 탈과 귀부인의 의상을 벗어던지는 일이었다。그런것들은 유기사의 남루보다 더 추악했고 그런 것들로 부터의 자유는 상상만으로도 욕망의 예감보다 더 위선 더 아늑 다왔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Nut 일체 ● 중풍 ● 고혈압
● 인삼 ● 녹용 ● 심장병 ● 부인병
● 웅담 ● 사향 ● 간장병 ● 양기부족
● 산삼 ● 홍삼 ● 비만증 ● 위장병
● 우황청심환 ● 보약 ● 신경통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를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제일오토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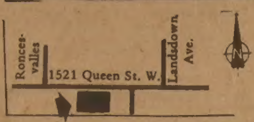
겨울맞이 특별 튠업 세일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기간 : 1개월간.

일반차량 : 8기통… $49.95
6기통… $42.95
4기통… $36.95

*물론 튜납시 엔진샴푸도 포함.



※오일및 휠터 교환 류브리케이숀 $16.95 Regular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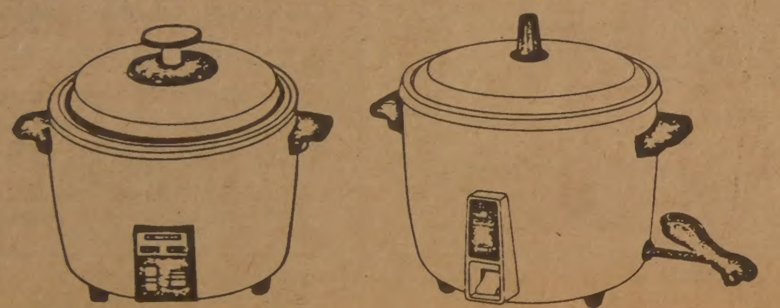
1521 QUEEN ST. W. B)532－0200, R)537－5830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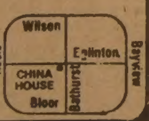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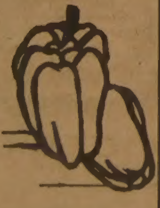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도 매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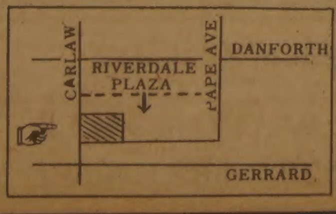


○ 채소 ○ 과일 ○ 화초

○최저가격
○최대봉사
○최고품질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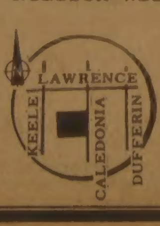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DOMINION SMALLWARES

November 15 - November 27		SPECIAL
McCormick's Peg Top Candy	12x1.19	$ 9.00
12 kinds, buy 16 cases get 1 FREE RACK		
Planter's peanuts in shell 14oz.	12x2.79	20.88
Laura Secord Regular Chocolate bar	36x40¢	9.59
incl. Turtles + Big Turk		
Life Savers Candy	24x30	4.59
Carefree gum	18x35	4.05
Breathsavers	18x35	4.05
Beechnut cough candy	24x30	5.30
Cigarette Bubble gum	36x25	5.49
Leaf 25¢ Ball gum	24x25	3.85
Tootsie Taffy	24x30	4.29
(vanilla, cherry, apple, choc.)		
Y & S Red Twizzlers	60x.5	1.65 per
buy 1 case (12 boxes)		1.59 box
Neilson Willow Pack	12x1.69	11.88

CASH & CARRY!



*크리스마스 까지 일요일도영업함!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상하수도,부엌, 난방, 온돌방
시설및 고장 수리.
전화 : 532-8662, 535-7878 류동훈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운전 개인지도. 서쪽 끝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 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무소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분. 주중과 주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4–9325

〈오토바디숍 헬퍼 구함〉
–자동차 일에 취미 가진 남자.
–주 40시간(년봉: 1만~1만2천불)
–학교에 보내 라이센스 받을 때까지 트레이닝 코스를 밟게 함.
전화 : 533–8507, 8508 Mr. 람

밀크스토아 메니저 구함.(오타와 지역)
약간의 보증금.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624–5817(토론토)

가사일 돌보실 분 구합니다.
월~금 오후부터, 더퍼린지하철 부근.
전화: 536–8262, 533–2361 Mrs. 조

〈급구〉 Pizza 집에서 Cash와 Order 받을
영어에 능통한 여자분 구함
전화: 267–2292(Mr. 문)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캐시와 막일할 경험있는
헬퍼 구함. ◉하루 9시간. ◉주6일.
전화: 534–3338 Mrs. 김(오후3시 이전)

◉남자 헬퍼 구함: 오후3시–밤11시(주 6일)
◉여자 캐쉬어 구함: 토·일요일
전화 : 921–0624

입주하셔서 두 아기 봐주실분 구함.
(5살, 1살)
전화 : 447–1460

도너스 가게서 일할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 222–3877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동반자 구함. ★본인은 컴퓨터 전문가, 신사, 캐나다 시민권자, Scandinavia 태생, 독신자, 참되고, 교육받고, 유머가 있으며,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읍니다. 25세–34세정도. 친구나 결혼할 용의가 있으신 분. 영어로 문의바람. BOX 833. Station K. Tor. Ont. M4P 2H2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차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몰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9시 문닫음)
주매상: $4,000 렌트: $450 로타리오와 비데오머신에서
$1,000수입 7050 Air Port Rd.(at Derry Rd.)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 지역
주매상: $12,000 렌트: $750 아스킹: $120,000+스탁
전화 : (514)366–8393 Mr. Plant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시내 영어지역.
(Plaza 내 2,200Sq.Fit.) 주매상: $10,000(81년도 세무보고 $468,650) 렌트: $780. 5년+5년. 영업시간: 주60시간(일요일 닫음) 시간연장 가능함. ◉백인한주인이 18년간 운영해온 안정된 가게임. 아스킹: $59,000 +스탁(4만) 캐시다운: $55,000 잔액: 10%모기지. (514)691–4751, 691–3704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비데오 아케이드 매매
아스킹: $20,000 리스: 4년+3년
전화 : 691–8337

그로서리 Store 매매.(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많은 권리금 기대하지 않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2 Door 팝 쿨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가게렌트 또는 빌딩 팝니다.
Dawes Rd. & Victoria Pk. Ave.
전화: 461–5386 저녁7시~10시.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방세놓습니다. Victoria Pk. & Finch코너
여자분에 한함.
전화 : 497–4221 Mrs. 김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3 Bed Rm.)
12월1일부터 입주가능. Victoria P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700(관리비 포함) ◉Sale: $64,000. 전화: 694–4812

3층 건물 렌트합니다.
Bathurst & Queen
음식 장만하게 만들어 졌음.
부엌, 대형 냉동기, 냉장기, 스토브, 씽크,
3층은 살림할수 있게 되어있음.
전화 : 364–1629(오전 9시–오후 5시)

집 매 매

4 Bed Rm.(Double Garage)
몰개지 : 11¾%.
장소: Morning side & Lawrence Ave. E.
(Mall 근처)
가격: $108,900
전화: 497–7272(B)·281–0672(R) Melwood.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밍 크

밍크 털공장 직매점 (Canada Mink Centre)
주소 : 712 Bloor St. W.
전화 : 535–7878, 532–8662 류동훈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현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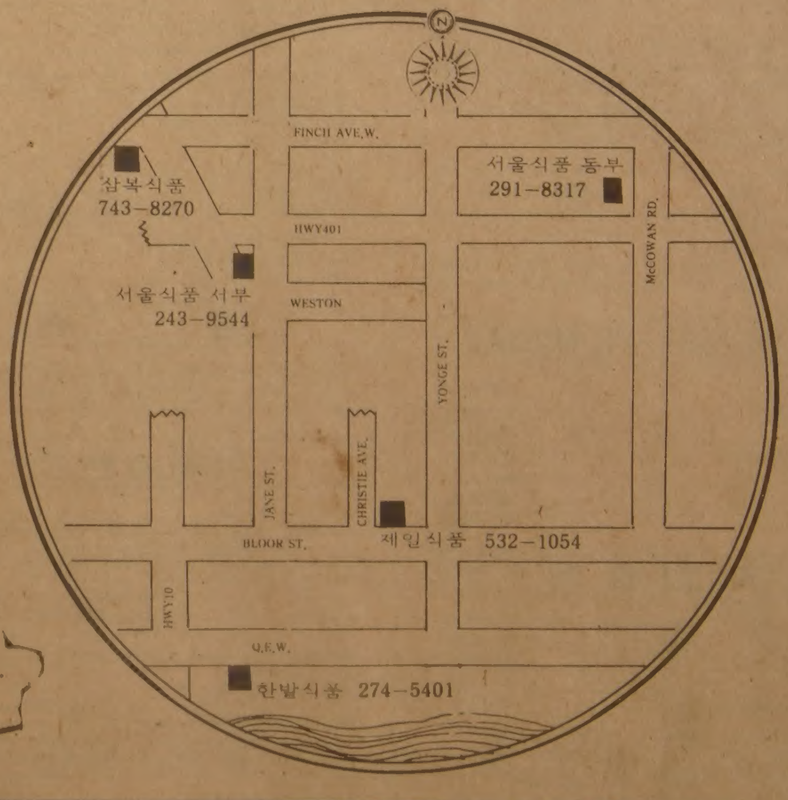
기대하던

D·Y 가주미 햅쌀

드디어 입하

〈50파운드 정량〉

판매처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발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부	243-9544	1391 WESTON RD.
	해밀톤	1-385-1485	128 BRUCEDALE AVE. E.